

한국어 의 역사

허인영 · 장경준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주차별 학습 내용

주차	주차명	차시	차시명
1	전체 오리엔테이션	1-1	강의 개요
		1-2	주차별 강의 내용 소개 (1)
		1-3	주차별 강의 내용 소개 (2)
		1-4	주요 개념/용어 설명: 표기
		1-5	주요 개념/용어 설명: 음운
		1-6	주요 개념/용어 설명: 문법
2	연구방법·시대구분·계통	2-1	언어사의 연구 방법
		2-2	언어사의 연구 자료
		2-3	외사와 내사, 시대 구분
		2-4	한국어의 계통에 대한 가설들:우랄-알타이어족설
		2-5	한국어의 계통에 대한 가설들: 다른 가설들
		2-6	한국어의 계통에 대한 가설들: 앞으로의 전망
3	표기·음운: 고대	3-1	차자표기의 발생
		3-2	이두
		3-3	구결
		3-4	향찰
		3-5	고대한국어의 자음
		3-6	고대한국어의 모음
4	표기·음운: 중세	4-1	‘훈민정음’과 『훈민정음』
		4-2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4-3	중세한국어의 자음
		4-4	중세한국어의 모음
		4-5	중세한국어의 성조
		4-6	사라진 글자와 소리
5	표기·음운: 근대	5-1	한글 표기법의 변화
		5-2	구개음화
		5-3	/·/의 비음운화
		5-4	하행이중모음의 단모음화
		5-5	기타 자음의 변화
		5-6	기타 모음의 변화

주차	주차명	차시	차시명
6	문법: 고대	6-1	고대한국어 표기 개관
		6-2	고대한국어 자료 개관
		6-3	고대한국어의 조사
		6-4	고대한국어의 어말어미
		6-5	고대한국어의 선어말어미와 문법 현상
7	문법: 중세	7-1	중세한국어 표기 개관
		7-2	중세한국어 자료 개관
		7-3	중세한국어의 조사
		7-4	중세한국어의 어말어미
		7-5	중세한국어의 선어말어미
8	문법: 근대	8-1	근대한국어 및 자료 개관
		8-2	근대한국어 형태의 특징
		8-3	근대한국어의 단어 형성
		8-4	근대한국어의 조사
		8-5	근대한국어의 선어말어미
		8-6	근대한국어의 어말어미와 문법 현상
9	어휘	9-1	어휘의 유형
		9-2	어휘의 변화
		9-3	고대한국어의 어휘
		9-4	중세한국어의 어휘
		9-5	근대한국어의 어휘
		9-6	현대한국어의 어휘
10	현대한국어	10-1	현대한국어의 성립과 문체
		10-2	현대 맞춤법과 표준어의 형성 과정
		10-3	현대한국어의 표기와 음운
		10-4	현대한국어의 체언과 조사
		10-5	현대한국어의 용언과 어미
		10-6	현대한국어의 방언

강좌 개요

강좌 개발의 필요성 및 적합성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 중에는 한국어의 역사적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꼭 한국어의 역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아니더라도,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불규칙하거나 예외적인 현상들은 한국어의 역사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통설도 계속해서 수정되고 있다. 이에 원론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도 학계에서 새롭게 정리되고 있는 내용, 즉 고려시대의 차자표기 자료나 중세한국어 문법에 대한 연구를 잘 녹여낸 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어의 역사적인 변화 전반을 다루는 본 강좌는 한국어를 보다 깊이 알고자 하는 외국의 학생이나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강좌의 학습목표

- 한국어의 역사적 변화에도 언어 변화의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됨을 이해할 수 있다.
-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가 변해 온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 한국어의 역사적 변화를 기반으로 현대한국어가 형성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기대효과

이 강의를 통해 학습자는 한국어가 변화해 온 과정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고, 현재까지도 변화하고 있다. 학습자는 천여 년간 누적된 한국어사 자료를 통해 음운, 표기, 문법, 어휘를 비롯한 한국어 전반의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강의의 내용은 한국학을 배우는 학습자가 한국어에 대하여 획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얻도록 해 줄 것이다.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강의 개요
2차시	주차별 강의 내용 소개 (1)
3차시	주차별 강의 내용 소개 (2)
4차시	주요 개념 및 용어 설명: 표기
5차시	주요 개념 및 용어 설명: 음운
6차시	주요 개념 및 용어 설명: 문법

1차시 강의 개요

학습 목표

- 한국어의 역사란 무엇이고,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와 허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의 역사>라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생각해볼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의 역사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다음으로는 한국어의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몇십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이후에 수없이 많은 변화를 거쳐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척추동물의 눈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가시광선을 받아들여 상이 맺히는 부분을 '망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망막에 이미지를 맺히게 하고 뇌로 그 이미지를 보내는 데 필요한 혈관과 시신경은 당연히 망막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척추동물의 눈에는 망막 앞쪽에 있습니다. 그 결과 망막에는 가려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가려지는 부분을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을 비롯한 척추동물은 대부분 이 맹점 때문에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이미지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눈을 움직여야 합니다. 한편 오징어, 문어, 낙지와 같은 두족류의 눈에는 맹점이 없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의 척추동물의 눈과 오른쪽의 두족류의 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척추동물의 눈과 두족류의 눈이 갖는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기게 된 걸까요? 척추동물의 망막은 피부밑에 있던 빛에 민감한 세포로부터 발달했습니다. 그 세포에 혈관과 신경이 연결되고 발달하면서 눈이 생겨났기 때문에 망막에는 맹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두족류의 눈은 빛에 민감한 세포가 피부 위에 있었기 때문에 혈관과 신경이 망막 뒤쪽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눈은 두족류의 눈에 비해 문제가 많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눈이든 오징어의 눈이든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난 변화의 산물일

뿐입니다.

언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거나 배우고 있는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처럼 예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사물을 가리키기 위한 단어가 만들어지고 ‘삐삐, 전차’와 같이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돼서 사라지는 단어도 있습니다. 한국어가 긴 시간 동안 변화해왔다는 사실은 과거의 한국어로 쓰여진 고전들을 읽어보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예를 볼까요?

화면에 제시된 글은 15세기에 만들어진 『석보상절』이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은 쓰이지 않는 문자나 단어가 많아서 바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대한국어로 된 번역문을 볼까요? “권속이 되어서 서러운 일도 이렇구나. 권속은 아내며 자식이며 종이며 집안의 사람을 다 권속이라고 한다.” 방금 앞에서 본 『석보상절』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중세한국어의 문장을 현대한국어에서 사용하는 문자와 단어로 번역한 문장을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겠조.

이렇게 한국어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크게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한국어가 변화했기 때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천천히 변화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온 것을 시간이 한참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그 변화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어가 변화하는 것을 문자나 단어가 변화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살펴본 『석보상절』의 예를 떠올려 보시죠. (가)에 제시된 ‘·(아래아), △(반시옷), ㅃ(순경음비읍), ㅅ(옛이음)’이라는 글자는 지금은 쓰이지 않습니다. ‘:사랴말’에서 글자의 왼쪽에 붙어 있는 한 개짜리 점이나 두 개짜리 점도 지금은 쓰이지 않습니다. 한편 (나)의 ‘다외다’와 ‘되다’, ‘썰다’와 ‘서렵다’를 보면 과거에 존재했던 단어의 형태가 변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에서 ‘갓’과 ‘아내’를 보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15세기와 현대에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문자의 차이는 중세한국어의 문자 체계와 현대한국어의 문자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된 문자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자의 역사가 곧 언어의 역사는 아닙니다. 언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문자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과거의 언어가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언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이러한 문자의 차이가 언어의 어떤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지 관심이 있습니다.

또 (나)에서 보였던 단어의 변화가 곧 언어의 변화인 것도 아닙니다. 중세한국어에서 사용되던 단어들의 모양이 바뀌거나 아예 사라지고 다른 단어로 바뀐 것은 분명히 언어의 변

화에 속합니다.

그러나 언어는 단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음운’이라고 불리는 말소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음운은 언어마다 그 체계가 있습니다. 또 이 음운들이 모여서 단어나 문장을 구성합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인 문법도 짜여진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음운 체계와 문법 체계가 단어의 집합, 즉 어휘 체계와 함께 유기적으로 언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의 변화 또한 어휘뿐만 아니라 음운, 문법 등 언어의 모든 측면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어의 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요? 한국어가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왜 알아야 하는 걸까요? 먼저 한국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한국어의 역사도 그 가운데 한 부분이 됩니다. 한국인은 이제까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역사에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인이 생활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역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한국학에서는 한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역사를 연구한 결과는 한국어로 쓰인 고전문학 작품들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앞서 살펴본 『석보상절』의 문장을 현대한국어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제까지 학자들이 15세기의 한국어를 연구한 덕분입니다. 조선 후기에 지어진 많은 시조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이나 한글 편지들도 그 당시의 한국어가 어떠했는지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시조는 『청구영언』이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이 만들어진 시기는 18세기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표기법이 현대한국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본 『석보상절』의 예와 달리 이 시조의 내용은 이해하기에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깨와다’라는 단어의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의 내용은 “가랑비가 오는 날 산에 있는 밭을 매다가 나무 그늘 아래서 잠든 나의 곁을 목동이 소와 양을 몰고 지나가고 그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이런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문학 쪽에서는 ‘깨와다’라는 단어를 ‘깨우는구나’와 같이 현재시제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어의 역사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깨와다’는 ‘잠을 깨우다’를 뜻하는 ‘깨오-’라는 어간에 ‘-아-’라는 선어말어미와 ‘-다’라는 종결어미가 결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는 가까운 과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깨와다’는 ‘깨우는구나’가 아니라 ‘방금 나를 깨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역사에 관한 지식은 현재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현대한국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한국어는 먼 옛날부터 한국어가 변해 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가)의 ‘멧부리’와 ‘멧새’는 중세한국어 문헌에서 ‘뫓부리’와 ‘뫓새’로 나타납니다. 또 중세한국어에서 ‘뫓’은 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현대한국어 ‘멧부리, 멧새’의 ‘메’가 ‘뫓’이 변해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 제시된 ‘갈치’는 한자어로 ‘도어(刀魚)’, ‘칼 물고기’라고 합니다. 또 중세한국어에서 ‘칼’을 ‘갈’이라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갈치’라는 이름은 그 물고기의 모습이 칼을 닮아서 붙여진 것이고 ‘갈’이 ‘칼’로 변한 이후에도 ‘갈치’는 ‘갈’이라는 옛날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시 주차별 강의 내용 소개 (1)

학습 목표

- 본 강의의 전반부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의 역사〉 강의에서 1주 차부터 5주 차까지 주차 별로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 차에서는 한국어의 역사란 무엇이고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는 모두 변하고 한국어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어의 역사는 한국학의 한 분야로 한국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며 한국의 고전문학은 물론 현대한국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서 두 주 차에 걸쳐서 간략하게 요약할 것입니다. 이 두 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각 주 차별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을 미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반부에서는 각 강의에 나오는 언어학 관련 개념과 용어들 가운데 중요한 것을 뽑아서 표기, 음운, 문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언어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수강자들도 본격적인 강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핵심적인 개념과 용어들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주 차에는 한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과 한국어사의 시대 구분과 그 기준, 그리고 한국어의 계통에 대해서 다룹니다. 먼저 한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언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관점으로는 언어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하는 전망적 관점과 특정 시점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구하는 회고적 관점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한국어의 역사를 연구할 때는 15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로 내려오는 전망적 관점이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회고적 관점을 취하는데 15세기가 중심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를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문자 자료를 통한 연구와 비교 방법, 내적 재구, 방언 비교

등이 있습니다. 한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문자 자료로는 고문헌, 고문서, 금석문, 목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어의 역사를 나누는 시대 구분을 살펴봅니다. 먼저 언어의 역사는 언어 체계 자체의 변화를 가리키는 내사와 언어를 제외한 사회의 다른 측면의 변화를 가리키는 외사,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계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밖에도 한국어의 계통에 관련된 다양한 주장이 있었지만, 어느 것이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주장이 있었고 그것들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 한국어의 계통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주 차에는 고대한국어의 표기와 음운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먼저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자를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한 방식인 차자 표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배웁니다. 고대 한국어 시기에 한국어를 표기하는 방식으로는 이두, 구결, 향찰이 있었습니다. 이두는 한자어와 함께 차자 표기를 이용한 한국어 문법 요소 표기를 사용해서 한국어 문장을 적는 차자 표기의 한 방식입니다. 구결은 한문 원문에 ‘토’, 즉 한국어 문법 요소를 첨가하는 차자 표기의 한 방식입니다. 향찰은 오랫동안 전해져 온 한국어 노래인 향가를 적는 데 쓰인 차자 표기의 한 방식입니다. 고대한국어의 음운 체계 가운데 자음은 중세의 한자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고대한국어에는 중세나 현대와 달리 경음은 존재하지 않았고 격음은 정착하고 있는 단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두 자음군은 중세한국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대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중세로 오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대한국어의 종성에서는 자음이 아홉 개 이상 발음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한국어의 모음은 15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한국어에서 일부 모음의 음가는 15세기의 음가와 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4세기에 한국어 모음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4주 차에는 중세한국어의 표기와 음운에 대해 배웁니다. 먼저 훈민정음이라는 문자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문자를 만든 세종의 자주, 애민, 실용 정신이 밑바탕에 있었습니다. 또한 훈민정음이라는 문자가 만들어진 뒤에 문자가 만들어진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하기 위해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책에서는 글자를 만든 이유와 목적을 알리고 각 글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글자들을 만들고 운용하는 원리를 자세히 해설했습니다.

중세한국어의 자음 체계는 『훈민정음』의 초성자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중세한국어에서 실제로 쓰인 음소를 정리해 보면 『훈민정음』의 초성자보다 더 많습니다. 중세한국어 자음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고대한국어에는 없었던 경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중세한국어의 모음도 『훈민정음』의 중성자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는데요. 중세한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일곱 개의 단모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중세한국어에는 소리의 높낮이로 의미를 구별하는 성조가 존재했습니다. 중세한국어에서 현대한국어로 오면서 사용되지 않게 된 글자와 그것들이 나타내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5주 차에는 근대한국어의 표기와 음운에 대해서 배웁니다. 중세한국어의 표기법은 형태소의 교체형을 밝혀 적는 표음주의 표기법이었습니다. 이것이 근대로 오면서 점차 형태소를 밝혀 적는 형태음소적 표기법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중세한국어의 표기법에는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근대한국어의 자음에서 일어난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구개음화입니다. 구개음화는 경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i/나 반모음 /j/ 앞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근대한국어의 모음에서 일어난 변화 중에 중요한 것으로 아래아(·)의 비음운화가 있습니다. 아래아는 15세기에는 하나의 모음으로 자리잡고 있었는데 두 단계에 걸쳐서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현대한국어에는 제주 방언을 제외하면 아래아가 남아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대한국어의 모음 변화 중에 또 중요한 것으로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있습니다. 중세한국어에는 ‘ㅐ’, ‘ㅔ’와 같이 단모음 뒤에 /j/가 후행하는 j계 하향이중모음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현대한국어에서 [e]와 같은 하나의 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ㅐ’, ‘ㅔ’가 특정 시기에 단모음으로 변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단모음화라고 부릅니다. 이 변화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19세기 후반에는 아래아가 사라지고 ‘ㅐ’와 ‘ㅔ’가 [e]로 단모음화되어서 여덟 개의 단모음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앞으로 각 주 차별로 보다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가 각 주 차별 강의를 듣는 데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라고 표기, 음운, 문법과 관련해서 설명이 더 필요한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이번 주차의 후반부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차시 주차별 강의 내용 소개 (2)

학습 목표

- 본 강의의 후반부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의 역사 강의에서 6주 차부터 10주 차까지 주 차별로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 차에서는 고대한국어의 문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먼저 복습 차원에서 고대한국어의 표기에 사용되었던 차자 표기가 무엇이고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정리합니다. 하나의 글자만으로는 형태를 알기 어려운 경우, 뜻으로 읽는 글자 뒤에 끝소리를 덧붙여서 적는 ‘말음첨기’라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다음으로는 고대한국어의 자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차자 표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이두, 구결, 향찰이 있는데요. 각각의 대표적인 자료로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한국어의 문법 요소 가운데 격조사와 보조사, 접속조사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고대한국어의 어미 가운데 어말어미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성어미의 경우에는 관형사형 기능 외에 명사형의 용법으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7주 차에는 중세한국어의 문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먼저 복습 차원에서 15세기 문헌에서 사용된 한글 자모가 무엇이고 쓰이지 않게 된 자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중세한국어의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중세한국어의 대표적인 자료를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것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중세한국어의 문법 요소 중에 조사, 그중에서도 격조사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보조사와 접속조사는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중세한국어의 어미 가운데 어말어미로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것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중세한국어의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는 이러한 것들이 쓰였습니다.

중세한국어의 사동법은 파생접사가 결합한 사동사로 실현이 되거나 ‘-게 하다’가 결합한

통사적인 구성으로 실현이 됐습니다. 피동법은 파생접사가 결합한 피동사로 실현이 되거나 ‘-어 디다’가 결합한 통사적인 구성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8주 차에서는 근대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먼저 근대한국어가 어떤 시기인지를 확인하고 근대한국어에서 일어난 변화의 원인은 임진왜란이라는 단일한 사건에 있지 않으며 근대한국어가 중세에서 현대로 오는 과도기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시대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근대한국어 시기의 대표적인 자료로는 한문을 번역한 언해서가 있고 외국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편찬된 역학서가 있습니다. 또 왕이 백성에게 내린 율음과 함께 근대한국어 시기에 활발하게 창작된 시조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과 개인이 기록한 일기나 편지 등도 근대한국어 시기의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대한국어의 형태음소론적 특징과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원래 중세한국어에 있었던 ㅎ 말음 체언과 특수어간 교체를 보이던 체언이나 용언이 근대한국어 시기에는 형태가 변하거나 단일화돼서 원래의 특징을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ㅁ/(순경음비음)과 /ㄷ/(반치음)이라는 음소가 사라지면서 용언의 활용에서도 ㅁ 불규칙 용언과 ㅅ 불규칙 용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대한국어에서 단어가 형성되는 예들을 살펴보면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 중에서 접두사와 접미사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합성어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중세한국어에 존재했던 비통사적 합성어는 점차 줄어듭니다.

근대한국어의 조사 중에서 격조사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나타나고 높임의 주격조사 ‘-겨옵서, -겨오셔’가 나타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관형격조사에서는 ‘-의’의 분포가 늘어나면서 ‘-ㅅ’이 점차 쓰이지 않게 됩니다. 호격조사에서도 원래 높임의 호격조사였던 ‘-하’가 점차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비교격조사나 보조사로는 이러한 것들이 쓰였습니다. 상대높임인 ‘-이-’는 다른 선어말어미와 융합이 돼서 점차 쓰이지 않게 됩니다.

시제와 상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에서는 새롭게 과거를 나타내는 ‘-엇-’, 미래를 나타내는 ‘-겻-’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쓰이게 됩니다. 근대한국어의 어말어미와 연결어미, 전성어미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9주 차에는 한국어의 어휘 변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휘는 단어의 집합인데 품사, 기원, 사용역 등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휘 변화의 유형으로는 형태 변화, 의미 변화, 범주 변화가 있고 어휘 변화의 요인으로는 언어적 요인, 지시 대상의 변화, 인식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고대한국어의 어휘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 단어를 확인할 수

있고 중국어에서 직접 들어온 차용어도 있습니다.

중세한국어의 어휘에서는 고유어에서 모음조화로 인한 의미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고 어휘를 통한 경어법의 예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자어가 훨씬 늘어나고 차용어 중에는 몽골어와 여진어에서 들어온 것과 중국어에서 직접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근대한국어의 어휘는 중세보다 현대에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보입니다. 고유어에서는 근대한국어 시기에 일어난 음운의 변화로 인해서 형태나 의미가 현대어에 가깝게 변한 예가 늘어나게 됩니다. 한자어에서는 한자어가 점점 많이 쓰이면서 고유어를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또 중국어 외에도 일본어나 만주어 차용어가 들어오기도 하고 중국을 거쳐서 서양의 개념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현대한국어에서는 서양의 사상과 문물을 나타내는 말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한자로 번역이 된 다음에 들어오면서 한자어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이외에 다른 서양어들에서도 어휘가 차용이 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어에서 들어온 단어도 대폭 늘어납니다. 현대한국어의 어휘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신조어의 지속적인 생성입니다.

10주 차에는 현대한국어에 대해서 배웁니다. 한국어의 역사에서 현대한국어는 개화기부터 현재까지를 가리키는데 그 안에서도 나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표기에 있어서는 한글만 사용하는 국문체와 한글과 한자를 함께 사용하는 국한문체가 힘겨루기를 하다가 국문체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또 근대화와 함께 맞춤법과 표준어를 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서울말을 중심으로 표준어를 정하게 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사전이라는 형태로 정리됩니다.

현대한국어의 음운은 근대한국어를 이어받으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음의 경우에 외래어로 인해서 어두에 ‘ㄹ’이 오는 단어가 늘어나게 되었고 모음은 19세기 후반의 8모음 체계를 거쳐서 20세기 초에는 ‘ㅟ’와 ‘ㅠ’가 단모음화해서 10모음 체계가 됩니다. 그 이후에 ‘ㅞ’와 ‘ㅟ’의 발음이 같아지고 ‘ㅟ’와 ‘ㅠ’가 이중모음으로 변하면서 현대한국어의 단모음은 일곱 개의 모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현대한국어의 조사는 근대한국어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 주격조사 ‘-이’와 ‘-가’의 교체가 자음 뒤에서 ‘-이’, 모음 뒤에서 ‘-가’로 완전히 굳어진 것은 현대한국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현대한국어의 어미에서는 계사 ‘-이-’와 ‘아니다’라는 용언의 활용이 중세한국어와 같이 ‘이라서, 이라고, 아니라서, 아니라고’와 같이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점차 규칙적인 ‘이어서, 아니어서’와 같은 패턴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상대높임법의 체계도 많이

바뀌어서 격식체 네 개와 비격식체 두 개의, 여섯 개 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에는 ‘-요’라는 보조사의 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객체높임은 어휘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결어미 중에는 본래 연결어미에서 기원한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현대한국어의 방언은 총 여섯 개 방언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동북방언과 동남방언은 깊은 관계가 있고 성조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북, 중부, 서남방언에는 음장이 있고 서북 방언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방언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육지 방언과는 많이 다르고 성조나 음장이 없습니다. 광복 이후로 남한과 북한이 70년 넘게 단절되면서 남북 간의 언어 차이도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까지 소개한 내용을 각 주차 별로 보다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가 각 주차 별 강의를 듣는 데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표기, 음운, 문법과 관련해서 설명이 더 필요한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이번 주차의 후반부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시 주요 개념 및 용어 설명: 표기

학습 목표

- 한국어의 역사 강의 내용 가운데 표기와 관련된 개념과 용어를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의 역사>를 강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표기와 관련된 개념과 용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자를 이용해서 한국어를 표기하던 시기와 관련된 개념과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변체 한문입니다. 한문은 고전 중국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한국인이 한자와 한문을 사용하게 된 뒤에 한국인이 작성한 한문은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어순 등에서 중국어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어의 영향을 받은 한문을 ‘변체 한문’이라고 합니다.

(가)의 ‘天前誓(천전서)’는 한국인이 쓴 한문에서 나타나는 표현인데 하늘 앞에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한문의 어순에 따른다면 (나)의 ‘前天誓(전천서)’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체 한문은 이후에 한자를 사용해서 한국어를 표기하는 방법이 발달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음으로 차자 표기입니다.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차자 표기라고 합니다. 차자 표기는 본래 한국어의 명사를 한자로 적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인이 한문으로 문장을 적을 때 다른 것은 한문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고유한 명사, 즉 지명이나 인명, 관직명 등을 적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한자의 음과 훈을 빌리는 것에는 음을 사용하는지 훈을 사용하는지 하는 ‘음/훈’의 원리와 한자의 원래 의미를 살리는지 아닌지 하는 ‘독/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따르면 차자 표기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독입니다. 음독은 한자의 음을 이용하면서 그 뜻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를 ‘公主’라는 한자로 적으면 ‘公’이라는 한자와 ‘主’라는 한자의 음을 이용하고 그 뜻도 살리는 것이 됩니다. 대체로 한 자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음가입니다. 음가는 한자의 음을 이용하지만, 그 뜻은 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개똥이’라는 단어의 ‘똥’을 이 ‘同’이라는 한자로 적으면 이 한자의 ‘동’이라는 음을 이용한

것이지만 ‘같다’라는 이 한자의 뜻은 무시하고 ‘동’이라는 발음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훈독입니다. 훈독은 한자의 훈을 이용하면서 그 뜻을 살리는 것입니다. ‘참이슬’을 ‘眞露’라는 한자로 적으면 ‘眞’이라는 한자와 ‘露’라는 한자의 훈을 이용하는 것인 동시에 그 뜻도 살리는 것이 됩니다.

네 번째는 훈가입니다. 훈가는 한자의 훈을 이용하지만 그 뜻은 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개똥이’라는 단어의 ‘-이’를 ‘뵤’라는 한자로 적으면 ‘이’라는, 이 한자의 훈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이 한자가 갖는 ‘이것’이라는 뜻은 무시하고 ‘-이’라는 한국어의 접미사만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두입니다. 차자 표기로 한국어의 문장을 적는 방식 중에 이두가 있습니다. 이두는 한자어나 한자 표현을 한국어 어순으로 배열하고 그 사이에 한국어 문법 요소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두는 주로 비석이나 종과 같은 기념물의 기록이나 공문서와 같은 공적인 기록에 사용되었습니다.

구결은 한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문을 이해하기 위해 한문 중간중간에 한국어의 문법 요소를 기입하는 차자 표기의 한 방식입니다. 구결에 사용되는 한자나 한글로 된 문법 요소를 ‘토’라고 합니다. 구결이 기입된 문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한문 원문이 중심이기 때문에 토를 제거하면 원래의 한문 문장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구결은 주로 유교나 불교 등의 경전에 사용되었습니다.

구결 중에서 석독 구결은 한문을 한국어 어순으로 풀어 읽기 위해서 한자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토를 단 것을 ‘석독 구결’이라고 합니다. 한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독 구결입니다. 한문을 의미가 끊어지는 단위로 나누고 중간에 토를 단 것을 ‘음독 구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문을 한국어로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번역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결의 종류 중에는 자토 구결과 점토 구결이 있는데요. 한문 원문에 토를 달 때 한자나 한글 등의 문자를 사용하는 구결을 ‘자토 구결’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한문 원문에 토를 달 때 문자가 아니라 점이나 선 등의 부호를 사용하는 구결을 ‘점토 구결’이라고 합니다.

향찰입니다.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한국어 노래를 향가라고 하는데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향가를 기록하는 방식을 향찰이라고 합니다. 향찰은 이두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한자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고유어로 된 가사를 적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향찰로 기록된 향가는 많지 않습니다.

형태소입니다. 형태소는 언어에서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형태소는 우

리 머릿속에 있는 심리적인 존재이고 더 나눌 수가 없으며 더 나누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ㅁ 받침을 가진 ‘값’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형태음소적 교체 또는 그냥 교체라고 하는 것인데요. 형태소는 그것이 나타나는 환경, 즉 앞이나 뒤에 오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형태음소적 교체 또는 그냥 교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값}이라는 단어는 뒤에 오는 조사에 따라서 ‘값이[갑씨], 값도[갑또], 값만[갑만]’과 같이 발음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교체’라고 합니다. 이 교체의 과정에서 하나의 형태소가 각각의 환경에서 교체되어서 실현된 구체적인 형태들을 ‘이형태’ 또는 ‘교체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ㅁ 받침을 가진 ‘값’의 이형태는 [갑씨, 갑, 갑],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한글 표기와 관련된 개념들인데요. 먼저 음소적 표기입니다. 형태소의 이형태 또는 교체형을 밝혀서 적는 표기법을 ‘음소적 표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음주의 표기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 ‘-이’라는 조사가 결합했을 때 이것을 ‘사라미’ 이렇게 적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음소적 표기는, 적는 입장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지만 읽는 입장에서는 그 표기가 어떤 형태소를 적은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는 사람 중심의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태음소적 표기입니다. 음소적 표기와 달리 형태소를 밝혀서 적는 표기법을 ‘형태음소적 표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의주의 표기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 ‘-이’가 결합한 것을 ‘사람이’로 적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형태 음소적 표기는 적을 때에는 어떤 것이 형태소인지 고민해서 적어야 하지만 읽는 입장에서는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읽는 사람 중심의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철입니다.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올 때 발음대로 받침을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적는 것을 ‘연철’이라고 합니다. 분철입니다.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올 때 발음 나는 대로 적지 않고 형태소를 밝혀 적는 것을 ‘분철’이라고 합니다. 중철입니다.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자음을 종성 및 어미의 초성으로 두 번 적는 것을 ‘중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형태소를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발음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이’를 ‘밥비’로 적거나 ‘먹어’를 ‘먹거’로 적는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과 현실 한자음입니다.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진 뒤에 당시 조선에서 쓰이던 현실 한자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중국의 과거 한자음에 맞춰서 만들어진 한자음 사전으로 『동국정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정된 한자음인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세종 때부터 세조 때까지 쓰였지만 인위적인 한자음인 탓에 성종 때부터는 점차 쓰이지 않고 현실 한자

음만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기본자입니다. 훈민정음에서 기본자는 초성자에 다섯 개, 중성자에 세 개가 있습니다. 초성자에서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조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ㄱ, ㄴ, ㄷ, ㄹ, ㅇ’의 다섯 개 기본자를 만들었고 중성자에서는 성리학의 원리에 따라 하늘, 땅, 사람의 삼재를 형상화해서 ‘· (아래아), —, |’, 세 개의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가획자입니다. 가획자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 다섯 개를 바탕으로 획을 더해서 소리가 세진다는 의미를 나타내서 만든 글자입니다. 이체자입니다. 이체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한 것은 가획자와 비슷하지만 가획자와 같은 소리가 세진다는 의미는 없는 글자입니다.

초출자입니다. 초출자는 중성자의 기본자 세 개를 조합해서 처음 만들어지는 글자입니다. 재출자입니다. 재출자는 중성자의 기본자와 초출자를 조합해서 다시 나오는 글자입니다. 병서입니다. 초성자를 조합하는 방식 가운데 두 개나 세 개의 초성자를 나란히 적는 방식을 병서라고 합니다. 병서에는 각자병서와 합용병서가 있습니다. 각자병서입니다. 각자병서는 동일한 초성자를 나란히 두 번 적는 것입니다. 합용병서입니다.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초성자를 나란히 두 개나 세 개 적는 것입니다. 연서입니다. 초성자를 조합하는 방식 중에 연서는 두 개의 초성자를 위아래로 적는 방식입니다.

5차시 주요 개념 및 용어 설명: 음운

학습 목표

- 한국어의 역사 강의 내용 가운데 음운과 관련된 개념과 용어를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음운과 관련된 개념 및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음소입니다. 음소는 언어에서 의미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작은 말소리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달, 탈, 딸’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의 뜻이 달라지는 이유는 /ㄷ, ㅌ, ㅍ/이라는 음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음소는 의미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고 음소 자체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음소는 슬래시(/ /) 안에 나타냅니다.

운소입니다. 운소는 언어에서 의미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요소 가운데 음소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운소에는 소리의 길이, 높이, 크기 등이 있습니다. 운소는 다른 말로 초분절 음소라고도 합니다. 음운입니다. 음운은 음소와 운소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입니다.

자음입니다. 기류가 구강 통로에서 방해를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말소리를 자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조음위치, 조음방법, 발성유형입니다. 자음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와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법, 공기를 성대에서 조절하는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대한국어의 자음을 조음위치, 조음방법, 발성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자음군입니다. 자음군은 초성이나 종성 위치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존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자음군은 어두 자음군, 어간의 종성에 오는 것은 어간 말 자음군이라고 합니다.

모음입니다. 기류가 구강 통로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말소리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혀의 높이, 혀의 앞뒤, 입술의 돌출 여부입니다. 모음은 발음될 때 혀의 높이,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돌출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대한국어의 모음을 혀의 높이,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돌출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모음입니다. 모음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조음 동작으로만 만들어지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ㅏ[a]’라는 모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발음하는 동작이 하나인 단모음입니다. 이중모음입니다. 모음 가운데 두 개의 조음 동작으로 만들어지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ㅗ’라는 모음은 반모음 /j/와 단모음 /ㅏ/가 결합한 것

로 [이아]라고 발음할 때 [i]에서 [ʌ]로 발음이 바뀌면서 조음 동작이 달라지게 됩니다. ‘ㅏ[ja]’와 같이 반모음이 앞에 오고 단모음이 뒤에 오는 구성은 상향 이중모음, ‘ㅓ[aj]’와 같이 단모음이 앞에 오고 반모음이 뒤에 오는 구성은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모음추이입니다. 모음 체계에서 모음들이 긴 시간에 걸쳐 하나의 모음이 다른 모음을 밀거나 당기는 식으로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모음 체계가 바뀌는 현상을 모음추이라고 합니다. 한국어에서도 14세기에 모음추이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모음조화입니다. 하나의 어절 또는 단어 내에서 같은 종류의 모음끼리 나타나는 현상을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중세한국어에서는 한 어절 내에서 ‘아래아(·), ㅏ, ㅓ’와 같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ㅡ, ㅜ, ㅗ’와 같은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렸습니다. ‘ㅣ’는 중성모음이었습니다. 현대한국어의 동사 활용에서도 ‘잡다’ 뒤에는 ‘-아’가 오고 ‘먹다’ 뒤에는 ‘-어’가 오는 것과 같이 어미의 모음이 어간의 모음과 같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모음조화의 한 예입니다.

성조입니다. 초분절 음소 가운데 음의 높이가 의미를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성조라고 합니다. 중국어에도 성조가 있고 한국어에서도 경상도나 강원도 동해안 방언에는 성조가 있습니다. 음장입니다. 초분절 음소 가운데 음의 길이가 의미를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음장이라고 합니다. 일본어나 한국어 일부 방언에서는 음장이 의미를 구별하는 데 쓰입니다.

음절은 하나 이상의 음소가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위를 말합니다. 음절은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성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동화입니다. 하나의 말소리가 앞이나 뒤에 오는 다른 말소리의 성질에 이끌려서 닮게 되는 것을 동화(同化)라고 합니다. 동화에는 바로 옆에 있는 말소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접동화와 하나 이상의 말소리를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원격동화가 있습니다. 또 앞에 오는 말소리로 인해서 뒤에 오는 말소리가 동화되는 것을 순행동화, 뒤에 오는 말소리로 인해서 앞에 오는 말소리가 동화되는 것을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이화입니다. 하나의 말소리가 앞이나 뒤에 오는 다른 말소리의 성질과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이화라고 합니다. 구개음화입니다. 경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i/나 반모음 /j/ 앞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굳이’라고 적는 단어가 [구제]로 발음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음운화입니다. 원래 한 언어에서 의미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던 소리, 즉 음운으로 존재 하던 말소리가 더 이상 음운이 아니게 되는 현상을 비음운화라고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아래아가 그 자신의 말소리를 가지고 있는 음소로서 존재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ㅡ’와

‘ㅏ’로 바뀌어서 사라지게 되는 비음운화를 겪었습니다.

단모음화입니다. 이중모음과 같이 본래 단모음이 아니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모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단모음화라고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ㅟ[əj]’, ‘ㅢ[aj]’와 같은 j계 하향 이중모음이 18세기 말부터 [e]와 [ɛ]로 단모음화를 겪었습니다. /i/ 역행동화입니다. 후행하는 /i/나 반모음 /j/로 인해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i/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삿기’가 ‘새끼’가 되거나 ‘아기’가 ‘애기’가 되거나 ‘먹이다’가 ‘멕이다’가 되는 것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격음화입니다. 평음이었던 자음이 격음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중세한국어의 ‘고ㅎ’이 ‘코’로 바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경음화입니다. 평음이었던 자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중세한국어에서 ㅅ 받침의 ‘갸다’가 ‘깁다’로 바뀐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원순모음화입니다. 양순음인 ‘ㅁ, ㅂ, ㅍ, ㅃ’ 뒤에서 ‘ㅡ’가 ‘ㅜ’로 변한 동화현상을 원순모음화라고 합니다. 중세한국어의 ‘물, 불’은 현대한국어에서 ‘물, 불’이 되었습니다. 비원순모음화입니다. 원순모음화와 반대로 양순음 뒤에 오는 ‘ㅛ’가 ‘ㅜ’로 변하는 이화 현상을 비원순모음화라고 합니다. 중세어의 ‘몬져, 보션’은 현대한국어에서 ‘먼저, 버션’이 되었습니다.

전설 고모음화입니다. 다른 모음이 전설 고모음 ‘ㅣ’로 변하는 현상을 전설 고모음화라고 합니다. 중세한국어의 ‘어즈럽다’가 ‘어지럽다’가 되고 ‘일죽’이 ‘일찍’이 되는 것과 같이 ‘ㅅ, ㅈ, ㅊ, ㅌ’ 뒤에 오는 ‘ㅡ’가 ‘ㅣ’로 바뀌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6차시 주요 개념 및 용어 설명: 문법

학습 목표

- 한국어의 역사 강의 내용 가운데 문법과 관련된 개념과 용어를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의 역사>를 강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문법과 관련된 개념과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품사에 따라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나눈 부류 내지 범주를 품사라고 합니다. 형태에 따라서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와 변하는 가변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는 주로 주어나 목적어 기능을 하는 체언, 서술어 기능을 하는 용언,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 앞에 오는 체언과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언, 다른 단어와 별다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체언 안에서도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 안에서도 동사, 형용사, 수식언 안에서 관형사와 부사, 이렇게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아홉 가지 품사 가운데 체언은 뒤에 관계언, 즉 조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어인 용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고 어간 뒤에 어미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는 현상을 곡용이라고 하고 용언 뒤에 어미가 결합하는 현상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어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요소 가운데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사입니다.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서 그 체언이 다른 단어에 대해 가지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수한 의미를 더해주는 요소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격조사입니다. 격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서 그 체언이 다른 단어에 대해 가지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주는 조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격조사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조사입니다. 보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서 그 체언에 특수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보조사라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접속조사입니다. 접속조사는 체언과 체언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성분이 되게 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접속조사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어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요소 중에 용언 어간 뒤에 오는 어미와 관련된 개념 및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미입니다.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뒤에 오는 형태소로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나타냅니다. 어미는 크게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나뉩니다.

어말어미입니다. 어말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가장 뒤에 오는 형태소를 말합니다. 어말어미는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종결어미입니다. 종결어미는 문장을 끝맺는 어말어미입니다. 종결어미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감탄형, 청유형, 약속형 등 문장 유형을 나타내는 동시에 상대높임에서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와 같이 청자를 높이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종결어미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연결어미입니다. 연결어미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어말어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문장을 대등적으로 연결하는 대등적 연결어미, 앞 문장을 뒤 문장에 종속되게 하는 종속적 연결어미, 본용언에 보조용언을 연결하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나뉩니다. 각 유형에 따라 대표적인 연결어미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성어미입니다. 전성어미는 용언이 문장 안에서 명사나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도록 성질을 바꾸어 주는 어말어미입니다. 크게 명사형 전성어미와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나뉩니다. 각 유형의 전성어미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선어말어미입니다. 선어말어미는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나타나는 형태소를 말합니다. 선어말어미는 높임법이나 시제, 상 등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나타냅니다.

높임법입니다. 문장의 등장인물이나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는 언어 표현을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높임법에는 주체높임, 객체높임, 상대높임이 있습니다. 주체높임입니다. 문장의 주체, 즉 주어를 높이는 높임법을 주체높임이라고 합니다. 현대한국어에서는 조사 ‘-께서’나 선어말어미 ‘-시-’가 주체높임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객체높임입니다. 문장의 주체가 하는 행위가 미치는 대상, 즉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높임법을 객체높임이라고 합니다. 현대한국어에서는 ‘드리다, 여쭙다, 뵈다, 모시다’와 같은 몇 개의 특수한 동사로 실현됩니다. 다음으로 상대높임입니다. 대화 상황에서 말을 듣는 사람, 즉 청자를 높이는 높임법을 상대높임이라고 합니다. 현대한국어에서는 주로 종결어미로 실현이 됩니다.

시제입니다. 문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사태를 시간상의 특정 위치로 지시하는 현상을 시제라고 합니다. 중세한국어와 현대한국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가 존재하는데 말하는 시점, 즉 발화시와 사건이 일어난 시점, 즉 사건시가 일치하면 현재, 사건시가 발화

시 이전이면 과거,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이면 미래가 됩니다. 상입니다. 사태의 시간적 위치와는 관련 없이 사태의 시간적 구조나 전개 양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된 문법 범주를 상이라고 합니다. 크게 사건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완망상과 사건 내부의 구조를 보는 비완망상으로 나뉩니다.

피동입니다. 주어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사의 성질을 피동이라고 합니다. 반대는 능동이라고 합니다. 현대한국어에서 피동을 만들 때에는 능동사에 ‘-이-, -히-, -리-, -기-’와 같은 피동 파생접미사를 붙여서 피동사를 만들거나 본동사에 보조동사 ‘지다, 되다’를 결합해서 피동 구성을 만듭니다. 사동입니다. 사동주가 피사동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동사의 성질을 사동이라고 합니다. 반대는 주동이라고 합니다. 현대한국어에서 사동을 만들 때에는 주동사에 ‘-이-, -하-, -리-, -가-, -우-, -구-, -추-’와 같은 사동 파생접미사를 붙여서 사동사를 만들거나 본동사에 보조동사 ‘-게 하다’를 결합해서 사동 구성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한국어에서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관련된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현상을 단어 형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파생과 합성이 있습니다. 단일어입니다. ‘책, 길, 산, 마음, 구름’과 같이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합니다.

복합어입니다.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합니다. 복합어에는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습니다. 파생어입니다. ‘덮개, 덧입다, 먹보’와 같이 단어나 어근에 접사를 붙이는 등의 조작을 가해서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합니다.

파생어를 만들 때 사용되는 접사를 파생접사라고 합니다. 파생접사에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습니다. 접두사입니다. 단어 또는 어근의 앞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접사를 접두사라고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단어의 품사는 바뀌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접두사의 예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접미사입니다. 단어나 어근의 뒤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접사를 접미사라고 합니다.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품사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미사의 예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합성어입니다. ‘산길, 책상, 컴퓨터’와 같이 둘 이상의 단어나 어근을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습니다.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의 구성요소가 결합하는 방식이 문장 구성에서의 규칙을 지키는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통사적 합성어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의 구성요소가 결합하는 방식이 문장 구성에서의 규칙에 어긋나는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비통사적 합성어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Lecture

1차시 강의 개요

Hello. This is Heo Inyoung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Inha University. In this session, we will discuss some important points to keep in mind as we start this lecture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First, let's think about what we mean by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Next, let's find out why we should learn about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Everything in the world changes. The Earth we live on now has gone through countless changes since it was formed billions of years ago. The same goes for the creatures living on Earth. The retina, in most vertebrates, is the part of the eye that captures incoming light and forms an image. We'd think that the blood vessels and optic nerves which send the image from the retina to the brain would be behind the retina, but in vertebrate eyes, they are in front of it. As a result, there is a part of the retina that is obscured. This obscured part is called a blind spot.

Due to this, most vertebrates, including humans, have to constantly move their eyes to receive the full image, although we may not realize it. On the other hand, cephalopod eyes, such as those of squid, octopus, and cuttlefish, do not have blind spots. If you look at the picture, the eyes of vertebrates are shown on the left, and the eyes of cephalopods are shown on the right.

Why did this difference between vertebrate and cephalopod eyes come about? The retina of vertebrates developed from light-sensitive cells that were originally located beneath the skin. As blood vessels and nerves connected and developed with these cells, eyes were formed, resulting in the inevitable presence of a blind spot on the retina. In contrast, cephalopods had light-sensitive cells located above the skin, so blood vessels and nerves

connected behind the retina.

From a current scientific perspective, human eyes may seem more problematic and strange compared to cephalopod eyes, From a current scientific perspective, human eyes may seem more problematic and strange compared to cephalopod eyes, but in reality, both human and cephalopod eyes are merely products of changes that occurr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Language is no exception. All languages around the world are constantly changing. The Korean language that we use and learn is the same. New words are created to refer to objects that didn't exist in the past, such as smartphones and the internet, and words like pagers and trams disappear as they are no longer used. The fact that the Korean language has changed over a long time can be quickly realized by reading classical texts written in old Korean. Shall we take a look at an example?

The text presented on the screen is a part of a book called "Seokbosangjeol," which was created in the 15th century. Not only is there no spacing, but there are also many characters and words that are no longer used, making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eaning immediately. Shall we take a look at the translation in modern Korean? "There are such sad aspects of being a gwanseok." A gwanseok, a family, refers to one's wife, children, servants, and everyone in the house. Such is the content of the Seokbosangjeol we saw earlier. Translating medieval Korean into characters and words used in modern Korean makes it much easier to understand.

In this way, the Korean language appears completely different now than in the past. It is because the Korean language has changed, but it didn't change overnight to its current form. It changed slowly over hundreds of years. Looking back at it after all these years, these gradual changes over this a long period feel very significant.

Many people think this change is equivalent to changes in characters or words. Think of of "Seokbosangjeol" that we just examined. The lower 'ah' vowel(·), half 's' letter(Δ), light bilabial 'b' letter(뵐), old letter for 'ng'(ㅇ) – as shown in the 1st point are not used anymore. The single or double dots

attached to the left side of the characters ‘:사랴말’ are also no longer used. On the other hand, if you look at ‘다되다’ and ‘되다’ (to become) or ‘쉴다’ and ‘서럽다’(to be sad) in the 2nd point the words have changed form. If you look at ‘갓’ and ‘아내’ in no.3 you can see that the words used to refer to the same object have changed between the 15th century and today.

First, the difference in characters, as seen in 1), is an example of how the character system of medieval Korean and modern Korean differ. Therefore, this is important in the history of the characters that represent the Korean language. However, the history of characters is not the same as the history of language. The reason why scholars studying the history of language are interested in the history of characters is because past languages were recorded in character form. In other words, scholars studying the history of language are interested in what kind of change in language these differences in characters reflect.

Also, the change in words as shown in 2) is not the same as change in language. The change in shape or disappearance of words used in medieval Korean, replaced with other by new words are undoubtedly part of language change.

However, language is not just made up of words. The language people use is composed of word sounds called phonemes. Phonemes have a unique system in each language, and these phonemes come together to form words and sentences. Grammar, a set of rules that compose sentences, is also organized in a structured system. These phonological and grammatical systems, along with a collection of words, that is, a lexical system, organically make up a language. Therefore, language change can be said to occur not only in vocabulary but also in all aspects of language, such as phonemes and grammar.

Then, why should we lear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Why do we need to know what Korean was like in the past? If we look at the whole history of Koreans till now, the history of Korean is integral to it. Koreans have lived and communicated in the Korean language. Which is why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can be said to reflect what Koreans have

thought and felt while living from a long time ago to now. Therefore, in the broad sense of Korean studies focused on historical aspects, study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is important.

Next, study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helps us accurately read and understand classical literary works written in Korean. Being able to understand the sentences of "Seokbosangjeol" in modern Korean is thanks to the scholars who have studied the 15th-century Korean language up to now. Many literary works such as poems and novels writt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Hangeul letters, can be accurately interpreted based on the results of studying the Korean language at that time.

Shall we look at an example? This poem shown here is from a book called "Cheonggu Yeongeon." Since this book was created in the 18th century, the orthography is not that different from modern Korean. Therefore, unlike the example of "Seokbosangjeol" we saw earlier, the content of this poem is not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However, how should we interpret the word "깨와다" that appears at the very end?

The poem's content depicts a scene where, on a drizzling day, "I" works in a field on a mountain, And falls asleep under a tree's shade, when a shepherd drives cattle and sheep past "I", waking him up with their sounds. In literary studies, the word "깨와다" is usually interpreted as "waking up" in the present tense.

However, based on the results of study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깨와다" is a combination of the stem "깨오-", which means "wake up from sleep," the pre-final ending "-아-", and the final ending "-다." Here, "-아-" indicates the recent past. Therefore, interpreting "깨와다" as "just woke me up" rather than "waking up" is the most natural.

Finally, knowledge about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helps understand modern Korean, which Koreans are currently using. This is because modern Korean is the accumulation of the Korean language changes since ancient times. In 1), The words "멧부리" and "멧새" in modern Korean appear as "뫓부리" and "뫓새" in medieval Korean texts. Also, in medieval Korean, "뫓"

means a mountain. Knowing this, we can understand that the '메' in modern Korean words "멧부리" and "멧새" is derived from a changing "뫼".

In 2), the word "갈치" in the example is a Sino-Korean word meaning "knife fish." Also, knowing that the word "칼(knife)" was called "갈" in medieval Korean, we can see that the name "갈치" was given to the fish because it resembles a knife in appearance, and even after "갈" changed to "칼", "갈치" maintains its old form "갈".

Lecture

2차시 주차별 강의 내용 소개 (1)

In this lesson, we will briefly introduce the topics to be covered in the first to fifth weeks of the Korean language history course.

In the first week, we will explore what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is and why we need to learn about it. Through this, you will come to understand that, like everything else in the world, all languages change, and Korean is no exception. Furthermore,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is a part of Korean studies, which helps us better understand Korean people and is essential for understanding not only Korean classical literature but also modern Korean in depth.

Next, we will provide a brief summary of the contents of the course over the span of two weeks. Through these two lectures, you will be able to get a rough understanding of what topics will be covered each week.

In the latter part, we will select essential linguistic concepts and terminology from the lectures and explain them by dividing them into notation, phonology, and grammar. Even students without expertise in linguistic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usage of these key concepts and terms before delving into the main course content.

In the second week, we will discuss the methods of study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the periodization of Korean language history and its criteria,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First, we will learn about the methods of study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There are two perspectives in studying the history of a language: the diachronic perspective, which studies language changes over time, and the retrospective perspective, which investigates the past by going back in time from a specific point. When it comes to research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a

diachronic perspective which focuses mainly on the 15th century and proceeds towards modernity. Or a retrospective perspective, which goes back into the past are used. However we will take a look at the reason why the research focuses on the 15th century.

The methods of studying languages include research through written materials, comparative methods, internal reconstruction, and dialect comparison. Necessary written materials for studying Korean language history include old texts, old documents, inscriptions, and woodblocks. We will learn what these materials are and the characteristics they possess.

Next, we will examine the periodization of language history. The history of a language can be divided based on changes in the language system itself, called "internal history," and changes in other aspects of society excluding language, called "external history."

Lastly, we will learn about the classifi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There have been various claims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but all of them had issues. We will look into what claims there were, what problems they had, and what could be helpful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future.

In the third week, we will learn about the notation and phonology of Old Korean. First, we will learn about the character notation used to represent the Korean language before the creation of Hangeul, which borrowed Chinese characters. During the Old Korean period, there were three ways to represent the Korean language: Idu, Gugyeol, and Hyangchal. Idu is a character notation method that uses Korean grammar elements with Chinese characters to write Korean sentences. Gugyeol is a character notation method that adds Korean grammar elements, or "to," to Chinese characters. Hyangchal is a character notation method used to write Hyangga, a long-standing Korean song. As for the phonological system of Old Korean, the consonants can be inferred to some extent through the Chinese characters used in the medieval period.

In Old Korean, there were no tense consonants like those found in the medieval and modern periods, and aspirated consonants seemed to be in the

process of becoming common. The initial consonant clusters, which appeared in medieval Korean, did not exist in Old Korean but seem to have emerged during the transition to the medieval period. Additionally, it appears that more than nine consonants were pronounceable in the final consonant position of Old Korean. We can only verify the vowels of Old Korean by going back to the 15th century. Some vowels in Old Korean are likely to have had different values from those in the 15th century. There are theories that claim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Korean vowel system in the 14th century, but currently,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support this.

In the fourth week, we will learn about the notation and phonology of medieval Korean. First, let's learn about the characters called Hunminjeongeum. The background of the creation of Hunminjeongeum lies in King Sejong's independence, compassion, and pragmatism. After the creation of the Hunminjeongeum characters, a book called 'Hunminjeongeum' was created to explain the principles and usage of the characters. In this book, the reasons and purposes for creating the characters are explained, followed by a brief explanation of each character and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principles for creating and using the characters.

The consonant system of medieval Korean is not entirely identical to the initial consonants of Hunminjeongeum. There are actually more phonemes used in medieval Korean than the initial consonants of Hunminjeongeum. One of the features of medieval Korean consonants is the emergence of tense consonants.

The vowels of medieval Korean were not entirely identical to the medial vowels of Hunminjeongeum. Upon analysis of documents from medieval Korean, there were seven simple vowels. In Medieval Korean, there was a tone system that distinguished meaning based on pitch. Characters from medieval Korean that did not evolve into modern Korean had their corresponding sounds.

In the fifth week, we will learn about the orthography and phonology of modern Korean. The orthography of medieval Korean was a phonetic one that revealed the replacement forms of morphemes. As it evolved into the modern

era, it gradually changed to a morphophonemic orthography that revealed morphemes. Additionally, medieval Korean notation did not have space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nges in modern Korean consonants is palatalization. Palatalization is a phenomenon in which non-palatal consonants change to palatal consonants before /i/ or the semi-vowel /j/. An important change in modern Korean vowels is the de-nasalization of the arae-a(·) or lower-a. Arae-a had established itself as a single vowel in the 15th century but disappeared in two stages. As a result, lower-a is no longer present in modern Korean, except for the Jeju dialect. Another important change in modern Korean vowels is the monophthongization of downward diphthongs. In medieval Korean, there were downward diphthongs like 'ㅐ' , 'ㅑ' with /j/ following a single vowel pronounced [ai] and [əi]. These are pronounced as a single vowel like [e] in modern Korean, which means that 'ㅐ' and 'ㅑ' changed to a single vowel at a certain point in time, in a process called monophthongization. This change seems to have occurred between the late 18th century and the early 19th century. As a result, by the late 19th century, arae-a had disappeared, and 'ㅐ' and 'ㅑ' had monophthongized into [e], leaving eight single vowels.

You will learn about these topics in more detail in the coming weeks. I hope this lecture serves as a guide for listening to the lectures for each week and that you refer to the latter part of this week's lectures for further explanations and concepts or terminology related to orthography, phonology, and grammar.

Lecture

3차시 주차별 강의 내용 소개 (2)

In this session, I will briefly introduce the content that will be covered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course from week 6 to week 10.

In week 6, we will learn about the grammar of Old Korean. First, as a review, we will summarize what the character notation used in Old Korean was and the principles applied. We will also learn about the method of adding final consonants to characters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in terms of form using only one character, called final sound addition.

Next, we will look more closely at the materials of Old Korean. Representative types of character notation include Idu, Gugyeol, and Hyangchal. Representative text for each can be seen on the screen. Among the grammatical elements of Old Korean, there were case markers, auxiliary particles, and conjunction particles like these.

Among the endings of Old Korean, there were these for sentence-final endings, and these for connective endings and attributive endings. In the case of attributive endings, they were used more often in noun functions than in attributive functions.

In week 7, we will learn about the grammar of Middle Korean. First, as a review, we will summarize what the Hangeul alphabet used in the 15th-century literature was and which alphabets were no longer used. Next, we will look more closely at the materials of Middle Korean. We will introduce examples of text from Middle Korean as seen on the screen. Among the grammatical elements of Middle Korean, there were particles such as case markers, and auxiliary particles and conjunction particles.

Among the endings of Middle Korean, the sentence-final endings were used

as shown on the screen. The connective endings and attributive endings of Middle Korean were used as shown here.

Causative constructions in Middle Korean were realized either through causative verbs combined with derivational suffixes or through syntactic constructions combined with '-게 흐다.' Passive constructions were realized either through passive verbs combined with derivational suffixes or through syntactic constructions combined with '-어 디다.'

In week 8, we will learn about the grammar of Early Modern Korean. First, we will see what sort of period Early Modern Korean was and emphasize that the causes of change in Early Modern Korean were not solely due to a single event such as the Imjin War, and that Early Modern Korean is not a transitional period from medieval to modern times but rather a distinct era that is a subject of research.

Representative materials from the Early Modern Korean period include translations of Chinese texts and reference materials for learning foreign languages. Literary works such as Sijo and novels, which were actively created during the Early Modern Korean period along with royal proclamations (yuneum) for the people, as well as personal records like diaries and letters, can also be considered important materials from this period.

Next, we will examine the morphophonemic features of Early Modern Korean and its words. Nouns and verbs that originally had ㅎ in their final position in Middle Korean and showed special stem alternation gradually lost their original features as their forms changed or became simplified during the Early Modern Korean period. Also, as the phonemes like sungyeongeum-bieup(병) and banchieum(Δ) disappeared, irregular ㅁ and ㅂ verbs emerged in verb conjugation.

When looking at examples of word formation in Early Modern Korean, there are these prefixes and suffixes that create derived words. Compound words are also formed in various ways, with the non-syntactic compound words that existed in Middle Korean gradually decreasing.

Among the particles of Early Modern Korean, the nominative particle '-가'

appeared in case markers, and the honorific nominative particles '-겨옵셔, -겨오셔' became noticeable. In the attributive case particle, the distribution of '-의' increased, and '-스' gradually ceased to be used. In vocative case particles, the originally honorific vocative particle '-하' also gradually fell out of use. Other comparative case particles and auxiliary particles were used as shown here. The relative honorific '-오]-' merged with other pre-final endings and gradually ceased to be used. Instead of the pre-final ending indicating tense and aspect, the new hanja that indicated the past '-엇-' and the one indicating the future '-겟-' were used.

In modern Korean, there were such forms in sentence endings, conjunctions, and attributive endings.

In week 9, we learn about the changes in the Korean vocabulary. Vocabulary is a collection of words, which can be divided into various categories based on criteria such as part of speech, origin, and usage. Types of vocabulary changes include morphological change, semantic change, and categorical change, and the reasons of vocabulary change include linguistic factors, changes in reference objects, and changes in perception. Korean words and Sino-Korean words, as well as loanwords directly from Chinese.

In medieval Korean vocabulary, we can observe semantic opposition due to vowel harmony in native words, and examples of honorifics through vocabulary. Moreover, the number of Sino-Korean words increases, and among loanwords are those from Mongolian and Jurchen languages, as well as those directly from Chinese.

Modern Korean vocabulary appears closer to contemporary Korean than medieval Korean. In native words, due to phonological changes during the modern Korean period, the form and meaning of words become closer to contemporary Korean. In Sino-Korean words, the tendency to replace native words with Sino-Korean words becomes stronger as their usage increases. Additionally, loanwords from Japanese and Manchu languages are introduced, as well as words representing Western concepts and objects that have passed through China.

In contemporary Korean, words representing Western thoughts and culture increase, as they are translated into Chinese characters in China and Japan, causing the number of Sino-Korean words to grow. Furthermore, vocabulary is borrowed from other Western languages besides English, and the number of words from Japanese significantly increas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 distinctive feature of contemporary Korean vocabulary is the continuous creation of neologisms.

In week 10, we learn about contemporary Korean.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contemporary Korean refers to the period from the Enlightenment to the present, which also has its own changes. First, in terms of notation, there is a struggle between the national script using only Hangul and the mixed script using both Hangul and Chinese characters, until the national script takes hold.

Additionally, with modernization, efforts to standardize spelling and establish a standard language emerge, resulting in a standard language centered around the Seoul dialect, and these efforts are compiled in the form of dictionaries.

The phonology of contemporary Korean has some differences from modern Korean. In the case of consonants, the number of words with 'ㄹ' at the beginning increases due to foreign words, and the 8-vowel system comes about in the late 19th century, becoming a 10-vowel system in the early 20th century with the monophthongization of 'ㅓ' and 'ㅗ'. Afterward, the pronunciation of 'ㅖ' and 'ㅗ' becomes the same, and 'ㅓ' and 'ㅗ' change to diphthongs, resulting in contemporary Korean's 7 monophthong vowels.

The particles of contemporary Korean have many similarities with modern Korean, but the positioning of subject particles '-이' and '-가' as '-이' after consonants and '-가' after vowels occurs only in contemporary Korean.

In contemporary Korean's endings, irregular conjugations of verbs '-아-' and '아니다', similar to medieval Korean, such as '이라서, 이라고, 아니라서, 아니라고', gradually give way to regular patterns like '이어서, 아니어서'. The system of honorifics changes significantly, established as 4 formal styles and 2 informal styles, with a total of 6 levels, with the emergence of the auxiliary particle '-

요' playing an important role. Object honorifics are expressed through vocabulary. And new sentence endings originating from conjunctions appear.

Contemporary Korean dialects can be divided into a total of 6 dialect regions. Among them, the Northeastern and Southeastern dialects have deep relationships and share the common feature of having tones. The Northwestern, Central, and Southwestern dialects have pitch accents, and the Northwestern dialect does not have palatalization. The Jeju Island dialect is quite different from the mainland dialects due to its distance and lack in tones or pitch accents. Since the liberation, as North and South Korea have been separated for over 70 years, the languag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have gradually deepened.

In the future, you will learn the content introduced so far in more detail each week. I hope this lecture has served as a guide for listening to the weekly lectures. For concepts and terms related to notation, phonology, and grammar that require further explanation, please refer to the latter half of this week's lectures.

Lecture

4차시 주요 개념 및 용어 설명: 표기

In this session, I will explain concepts and terms related to notations used in the process of this lecture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First, let's look at the concepts and terms related to the period when Korean was written using Chinese 'Hanja' characters before Hangul was created. It is called 'variant Hanmun'. Hanmun is classical Chinese written in Hanja characters. After Koreans started using Hanmun and Hanja, the Hanmun written by Koreans was often influenced by pure Korean, such as word order, which differed from Chinese. Such a Hanmun influenced by Korean is called "variant Hanmun."

The expression (가) '天前誓(천전서)' appears in Hanmun written by Koreans, meaning "swear before the sky." If following the word order of Hanmun, it should be as in (나) '前天誓(전천서)'. Variant Hanmun great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methods for notating Korean using Hanja later on.

Next is the character notation. Character notation is a method of notating Korean by borrowing the sounds and meanings of Hanja. Character notation was originally created to write Korean nouns in Hanja. When Koreans wrote sentences, even if everything else was written in Hanmun, it was necessary to have another method to write unique nouns that do not exist in Chinese, such as place names, personal names, and official titles.

The principles of "음/훈", which is whether to use sounds or meanings when borrowing the sounds and meanings of Hanja and the principle of "독/가", which is the choice to use or dismiss the original Hanja meaning, are applied. According to this, character notation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The first is sound using. Sound reading is the use of the sound of a Hanja while retaining its meaning. For example, when writing the word "princess" with the

Hanja "公主", both the sound and the meaning of the Hanja "公" and "主" are used. This generally corresponds to Sino-Korean words.

The second is sound . Sound dismissing is the use of the sound of a Hanja character without retaining its meaning. For example, when writing the word "똥" of "개똥" with Hanja "同(같은 동)", only the sound value of '동' is used, but its meaning 'to be equal' is ignored.

The third is meaning reading. Meaning reading is the use of Hanja sound while retaining its meaning too. When writing "참이슬" as "眞露" in Hanja, the meaning of "眞" and "露" Hanja are used, and their meanings are retained.

The fourth is meaning dismissing. Meaning ignoring is the use of the meaning of a Hanja without retaining its meaning. When writing the word "-이" of "개똥이" with the Hanja "是(이 시)", only the meaning "-이" of this Hanja is used, but its full meaning of 'this' is ignored, and it only represents the Korean suffix "-이".

Next is Idu. Idu is one of the methods of writing Korean sentences using character notation. Idu arranges Sino-Korean words or Hanja expressions in Korean word order and inserts Korean grammatical elements in between. Idu was mainly used in official records such as inscriptions on memorial objects like tombstones and bells, and public documents.

Gugyeol is a method of character notation used in the process of learning Hanmun, in which Korean grammatical elements are inserted in the Hanmun text to aid understanding. The Hanja or Hangul characters used as grammatical elements in Gugyeol are called "to." The most significant feature of sentences with Gugyeol is that the original Hanmun text remains the center, so removing the "to" elements returns it to the original Hanmun sentence. Gugyeol was mainly used in Confucian and Buddhist scriptures.

In Seokdok Gugyeol, "to" is attached to the left or right of the Hanja to read the Hanmun text in Korean word order. This can be considered one way to translate Hanmun into Korean. Eumdok Gugyeol involves dividing the Hanmun text into units where meaning is broken and inserting "to" between them. This is one way to understand Hanmun in Korean, but it is difficult to call it a

translation.

Among the types of Gugyeol, there are Jato Gugyeol and Jeomto Gugyeol. Jato Gugyeol uses characters like Hanja or Hangul when attaching "to" to the original Hanmun text. In contrast, Jeomto Gugyeol uses symbols like dots or lines instead of characters when attaching "to" to the Hanmun text.

Hyangchal is a method of recording Hyangga, which are Korean songs passed down orally for a long time, by borrowing the sound and meaning of Hanja. Hyangchal is similar to Idu, but it mostly involves writing lyrics in native Korean words rather than Sino-Korean words. There are not many Hyangga lyrics remaining that are recorded in Hyangchal.

A morpheme is the smallest meaningful unit in language. Morphemes are psychological entities in our minds that cannot be further divided, as doing so would render them meaningless. An example is the word "값" with the 받침 ㅁ.

Morphophonemic alternation, or simply alternation, refers to the change in the concrete form of a morpheme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i.e., the elements preceding or following it. This is Morphophonemic alternation, or alteration. For example, the word {값} changes its pronunciation depending on the following particle, such as '값이[갑씨], 값도[갑또], 값만[갑만]'. In this process of alternation, the concrete forms in which a single morpheme is realized in various environments are called allomorphs or alternants. For example, the allomorphs of the word '값' with the 받침 ㅁ are [갑씨, 갑, 값].

These are concepts related to Hangul notation. First, there is phonemic notation. Phonemic notation is a writing system that indicates the allomorphs or alternants of morphemes. It is also called "phonocentric notation". For example, when the word "사람" (person) and the particle "-이" are combined, it is written as "사라미." Phonemic notation is writer-centered because it can be written as it sounds, but the reader needs to consider which morpheme the notation represents. So it is a writer-centric notation method.

Next is morphophonemic notation. Unlike phonemic notation, "morphophonemic notation" is a writing system that indicates morphemes. It is also called morphocentric notation. For example, when the word "사람" (person)

and the particle "-이" are combined, it is written as "사람이." Morphophonemic notation requires consideration of which part is the morpheme when writing, but it is reader-centered because it is more readable.

"Yeoncheol" is when a noun with a final consonant or verb stem is followed by an ending/어미 or a particle which begins with a vowel, and the final consonant is written, as it is read, as the initial consonant of the next syllable. "Buncheol" is when a noun with a final consonant or verb stem is followed by an ending or particle which begins with a vowel, and the morpheme is indicated without being written as read. "Jungcheol" is when the consonant of a noun with a final consonant or verb stem is written twice, once as the final consonant and once as the initial consonant of the ending. This can be seen as a reflection of the desire to reveal both the morpheme and the pronunciation. For example, writing "밥이" as "밥비" or "먹어" as "먹거".

Dongguk Jeongun-style Sino-Korean pronunciation and contemporary Sino-Korean pronunciation: After the creation of Hunminjeongeum, the Dongguk Jeongun dictionary came about, which corrected the contemporary Sino-Korean pronunciation used in Joseon at that time to match the historical Chinese pronunciation. This corrected Sino-Korean pronunciation, called Dongguk Jeongun-style, was used from the time of King Sejong to King Sejo, but since it was artificial, it gradually fell out of use from the time of King Sejongjong, and only the contemporary Sino-Korean pronunciation was used.

"기본자(Basic characters)" in Hunminjeongeum include five initial consonants and three medial vowels. For the initial consonants, five basic characters, 'ㄱ, ㅋ, ㆁ, ㆁ, ㆁ', were created following the principle of ideographic representation based on the shape of the articulatory organs. For the medial vowels, three basic characters, '아래아(·), —, ㅣ', were created by visualizing the three elements of heaven, earth, and human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Neo-Confucianism.

This is a "가획자". 가획자 is a character made by adding strokes to the 5 basic character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가획," which means 'the sound becomes stronger.' This is an "이체자." Icheja is similar to Gahoekja in that it adds strokes to the basic characters, but it does not have the same meaning

of the sound becoming stronger as Gahoeuja.

This is a "초출자". 초출자 is a character created by combining the 3 basic neutral characters for the first time. This is a "재출자". 재출자 is a character that reappears by combining the basic characters of neutral characters and Chochulja. This is a "병서". Amongst all the methods of combining initial characters, Byeongseo is one that writes 2 or 3 initial characters side by side. Byeongseo has two types: "각자병서" and "합용병서". 각자병서 is when the same initial character is written side by side twice. 합용병서 is when 2 or 3 different initial characters are written side by side. "연서" is a method of combining initial characters where 2 initial characters are written one above the other.

Lecture

5차시 주요 개념 및 용어 설명: 음운

In this lesson, I will explain concepts and terms related to phonetics.

Phoneme is the smallest sound in a language that distinguishes meaning. For example, '달, 탈, 딸' are words with different meanings. The reason these words have different meanings is because of the different phonemes /ㄷ, ㅌ, ㅍ/. Phonemes play a role in distinguishing meaning, but they do not have meaning themselves. Phonemes are represented within slashes(/ /).

Suprasegmental, or prosodeme, is a term that refers to elements other than phonemes that play a role in distinguishing meaning in language. Suprasegmentals include sound length, pitch, and intensity. Suprasegmentals are also called non-segmental phonemes. Phonetics is a term that refers to both phonemes and suprasegmentals.

Consonants are sounds produced when the airflow is obstructed in the oral cavity. Next are the place of articulation, manner of articulation, and voicing type. Consonants can be classified based on the location and method of sound production, and how the air is regulated by the vocal cords. When classifying modern Korean consonants based on place of articulation, manner of articulation, and voicing type, the following table can be used. A consonant cluster is when two or more consonants exist in the initial or final position. Consonant clusters at the beginning of a word are called onset clusters, and those in the final position of a stem are called coda clusters.

Vowels are sounds produced when the airflow is not obstructed in the oral cavity. Tongue height, tongue front and back, and lip protrusion are factors that determine vowel classification. Vowels can be classified based on tongue height, tongue position, and lip protrusion during pronunciation. When classifying modern Korean vowels based on tongue height, tongue position,

and lip protrusion, the following table can be used. A simple vowel is a vowel that is produced with a single articulatory movement from beginning to end. For example, the vowel 'ㅏ[a]' is a simple vowel with a single pronunciation movement from beginning to end. A diphthong is a vowel that is produced with two articulatory movements. For example, the vowel 'ㅑ' is a combination of the semivowel /j/ and the simple vowel /ㅏ/. When pronounced as [o|a], the pronunciation changes from [o] to [ㅑ], changing the articulatory movement. In a diphthong like 'ㅑ[ja]', with a semivowel in front and a simple vowel in the back, it is called a rising diphthong. In contrast, with a simple vowel in front and a semivowel in the back, like 'ㅓ[aj]', it is called a falling diphthong.

Vowel shift is a phenomenon where, over a long period, vowels in a vowel system push or pull one another, causing changes in their positions and eventually changing the entire vowel system. There are claims that a vowel shift occurred in the 14th century in Korean.

Vowel harmony is a phenomenon where the same type of vowels appear together within a word or a syllable. In Middle Korean, within a syllable, 'lower-a(ㅏ), ㅓ, ㅑ' and other positive vowels were grouped together, while 'ㅡ, ㅜ, ㅗ' and other negative vowels were also grouped together. 'ㅣ' was a neutral vowel. In modern Korean verb conjugation, we can also see vowel harmony as in '잡다' followed by '-아' and '먹다' followed by '-어', where the vowel of the ending must match the vowel of the stem.

Tone is a suprasegmental feature where the pitch of a sound is used to distinguish meaning. Tone exists in Chinese, and in Korean dialects from the Gyeongsang and Gangwon regions. Length is another suprasegmental feature where the duration of a sound is used to distinguish meaning, as in Japanese and some Korean dialects.

A syllable is a unit made up of one or more phonemes according to certain principles. Syllables consist of an initial consonant, a medial vowel, and a final consonant, with the medial vowel being mandatory. Assimilation occurs when one sound becomes more similar to a neighboring sound coming after it. Assimilation can be adjacent caused by sounds parallel to each other, or

non-adjacent, with sounds in between, Or it can be progressive when the sound gets assimilated due to the one in front, or regressive, when the sound in front is assimilated due to one in the back.

Dissimilation occurs when one sound becomes less similar to a neighboring sound.

Palatalization is the process where a non-palatal consonant becomes palatal when it appears before /i/ or a semi-vowel /j/. For example, the word '굳이' is pronounced as [구지].

Dephonicization occurs when a sound that was originally a phoneme in a language loses its phonemic status. In Korean, the vowel 'lower a(·)' used to be a distinct phoneme but disappeared over time, being replaced by 'ㅡ' and 'ㅏ'.

Monophthongization is the process where a diphthong, which were not initially monophthong, becomes one over time. In Korean, 'ㅟ[əj]', 'ㅢ[aj]', and other j-related diphthongs underwent monophthongization to [e] and [ɛ] since the late 18th century. Regressive /i/ assimilation is the process where a following /i/ or a semi-vowel /j/ changes a back vowel to a front vowel, as in '삿기' becoming '새끼', '아기' becoming '애기', or '먹이다' becoming '멕이다'.

Tensification is the process where a lax consonant becomes a tense consonant. For example, in Middle Korean, '고ㅎ' changed to '코'. Lenition is the process where a lax consonant becomes a lenis consonant. In Middle Korean, the 'ㅅ' final consonant in '쟈다' changed to '깁다'.

Labial vowel assimilation is the process where 'ㅡ' changes to 'ㅑ' after a labial consonant 'ㅁ, ㅂ, ㅍ, ㅜ'. '물, 불' from Middle Korean changed to '물, 불' in Modern Korean. Non-labial vowel assimilation is the process where, contrary to labial vowel assimilation, the vowel 'ㅏ' changes to 'ㅑ' after a labial consonant. '몬져, 보션' of Middle Korean changed to '먼저, 버션' in Modern Korean.

Front high vowel assimilation is the process where other vowels change to the front high vowel 'ㅣ'. '어즈럽다' from Middle Korean changed to '어지럽다',

and '일즉' changed to '일찍'. This phenomenon can be observed when the vowels 'ㅡ' following 'ㅅ, ㅈ, ㅊ, ㅌ' change to 'ㅣ'.

Lecture

6차시 주요 개념 및 용어 설명: 문법

In this session, we will explain concepts and terms related to grammar used in this lecture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First, let's learn about classifying words according to their parts of speech. A part of speech is a category or class of words divided according to their form, function, and meaning. Based on form, words can be divided into invariable words and variable words. According to function, they can be divided into substantives, which mainly function as subjects or objects; predicates, which function as descriptive words; modifiers, which decorate other words; relational words, which indic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 preceding substantive and another word; and independent words, which are used independently without any particular relationship to other words. When divided by meaning, we can further categorize substantives into nouns, pronouns, and numerals; predicates into verbs and adjectives; and modifiers into adnominals and adverbs.

Among these nine parts of speech, substantives are followed by relational words, or particles. In variable words like predicates, the unchanging part is called the stem, and the changing part is called the ending. The stem can be followed by the ending. The phenomenon of a substantive and a particle combining is called inflection, and the phenomenon of a predicate followed by an ending is called conjugation.

Next, we will examine particles, which are grammatical elements in Korean. Particles are elements that attach to substantives to indicate the grammatical relationship they have with other words or to add special meaning. These include case particles, auxiliary particles, and conjunction particles.

Case particles attach to substantives to indicate the grammatical relationship

they have with other words. Some representative case particles are as follows. Auxiliary particles attach behind substantives to add special meaning. Some representative auxiliary particles are as follows. Conjunction particles connect substantives to form a single constituent in a sentence. Some representative conjunction particles are as follows.

Next, we will learn about the concepts and terms related to endings that come after the verb stem in Korean. Endings are morphemes that come after the verb stem during conjugation and represent various grammatical functions. Endings are divided into final endings and prefinal endings.

Final endings are the morphemes that come last in a conjugated verb. Final endings can be further divided into connective endings, attributive endings, and conclusive endings. Conclusive endings are final endings that end a sentence. They simultaneously indicate sentence types, such as declar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exclamatory, suggestive, and promissory forms, and the degree of honorifics for the listener, such as the plain, gentle, and respectful forms. Some representative conclusive endings are as follows.

Connective endings connect sentences to each other. They are generally divided into coordinating connective endings, which connect two sentences equally; dependent connective endings, which make the preceding sentence dependent on the following sentence; and auxiliary connective endings, which connect the main verb to the auxiliary verb.

Some representative connective endings for each type are as follows. Attributive endings change the nature of a verb so that it functions as a noun or adnominal within a sentence. They are divided into nominal attributive endings and adnominal attributive endings. Some representative attributive endings for each type are as follows. Prefinal endings are morphemes that appear between the stem and the final ending. Prefinal endings represent various grammatical functions, such as honorifics, tense, and mood.

Honorifics are linguistic expressions that elevate the status of a character in a sentence or the person one is speaking to. There are three types of honorifics: subject honorifics, object honorifics, and listener honorifics. Subject

honorifics elevate the status of the subject, or the doer, in a sentence. In modern Korean, markers such as '-께서' and the prefix '-시-' indicate subject honorifics.

Object honorifics elevate the status of the object or adverbial that the subject's action affects. This is a form of honorific that elevates the status of the object or the adverbial component. In modern Korean, object honorifics are realized through a few special verbs such as '드리다', '여쭙다', '봬다', and '모시다'. Listener honorifics elevate the status of the listener, or the person being spoken to, in a conversational context. In modern Korean, these are mainly realized through sentence endings.

Tense is the grammatical phenomenon that indicates the temporal location of an event or state through linguistic means. Both Middle and Modern Korean have three tenses: past, present, and future. The tense depends on whether the event time coincides with the speaking time (present), precedes it (past), or follows it (future). Aspect is a grammatical category related to the viewpoint of an event's temporal structure or development, regardless of its temporal location. It is divided into perfective aspect, which views the event as a whole, and imperfective aspect, which focuses on the event's internal structure.

Passive voice refers to the quality of a verb when the subject is acted upon by someone or something else. The opposite is the active voice. In modern Korean, passive voice is formed by attaching passive derivational suffixes such as '-오-', '-히-', '-리-', '-기-' to active verbs or by combining the main verb with auxiliary verbs '지다' or '되다'. Causative voice refers to the quality of a verb when the subject causes someone or something else to perform an action. The opposite is the non-causative voice. In modern Korean, causative voice is formed by attaching causative derivational suffixes such as '-오-', '-히-', '-리-', '-기-', '-우-', '-구-', '-추-' to non-causative verbs or by combining the main verb with the auxiliary verb '-게 하다'.

Next, let's look at concepts and term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words in Korean. Word formation is the process of creating new words based on existing elements. This includes derivation and compounding. Simple words,

like '책', '길', '산', '마음', '구름', are made up of a single morpheme that cannot be further divided.

Compound words are made up of two or more morphemes. Compound words include derived words and compound words. Derived words, such as '덮개', '덧입다', '먹보', are created by attaching affixes to words or word roots.

Derivational affixes used to create derived words are called derivational affixes. These include prefixes and suffixes. Prefixes are affixes that attach to the beginning of a word or word root to create a new word. Most of the time, the part of speech of a newly created word does not change. Here are some examples of prefixes. Suffixes are affixes that attach to the end of a word or word root to create a new word. In many cases, the part of speech of a word changes when a suffix is attached. Here are some examples of suffixes.

Compound words, such as '산길', '책상', '검푸르다', are formed by combining two or more words or word roots. There are two types of compound words: syntactic compounds and non-syntactic compounds. Syntactic compounds are compound words whose components follow the rules of sentence formation when they are combined. Here are some examples of syntactic compounds. Non-syntactic compounds are compound words whose components do not follow the rules of sentence formation when they are combined. Here are some examples of non-syntactic compounds.

讲义

1차시 강의 개요

大家好。我是仁荷大学韩国语文学系的许仁宁。本节课在对〈韩国语的历史〉进行讲解时将对一些需要思考的问题展开讨论。首先思考什么是韩国语的历史。之后，我们来了解为什么要学习韩国语的历史。

世间的万物都处在变化之中。我们生活的这个地球出现于几十亿年前，之后经历了无数次的变化，到达了现在的状态。生存在地球上的生物也是如此。大部分脊椎动物的眼睛接收了来自外部的可见光，成像的这一部分称为“视网膜”。但让视网膜成像，并向大脑传达图像，就必须有血管和视神经的参与，而血管和视神经存在于视网膜的后方，对于脊椎动物的眼睛而言，视网膜则位于前方。这样就会形成遮挡住视网膜的部分，这一部分称为“盲点”。

包括人类在内的大部分脊椎动物无法自身察觉这一盲点。为了能够准确获取图像，眼睛要时刻不停地处于移动之中。另一方面，在鱿鱼、章鱼、八爪鱼等头足类动物的眼部却不存在盲点。如图所示，左侧是脊椎动物的眼睛，右侧是头足类动物的眼睛。

脊椎动物和头足类动物的眼睛为何会存在如此差异？脊椎动物的视网膜是从皮肤底部的光敏感细胞中发育而来的。随着血管和神经连接发育形成了眼睛，所以视网膜上必然会存在盲点。反之，对于头足类的眼睛来讲，光敏感细胞处于皮肤的上面，因此血管和神经连接在了视网膜的后方。

虽然从现代科学的观点来看，和头足类的眼睛相比人类的眼睛会存在诸多问题，而且看起来也很奇怪，但实际上，无论是人类的眼睛还是鱿鱼的眼睛，都只是长期发生变化的产物。

语言也不例外，全世界所有的语言都存于变化之中。我们所使用或学习的韩国语也是如此。为了指代“智能手机、网络”这种以前不存在的事物而制造出新的单词，也存在像“bb机、电车”一样已不再使用而消失的词汇。阅读过去使用韩国语标记的古典文学，那么马上就能领悟到“韩国语在很长一段时期内都处于变化之中”这一事实。我们来看一下例子。

画面所示的文字是出版于15世纪名为《释谱详节》一书的某一部分。不仅文字之间没有隔写，而且还存在许多现在不使用的文字或单词，因此无法了解其意义。我们来看一下现代韩国语的译文。“권속이 되어서 서러운 일도 이렇구나.” “권속은 아내며 자식이며 종이며 집안의

사람을 다 권속이라고 한다.”之前《释谱详节》中的内容就对应上述的现代韩国语。把中世韩国语的句子翻译成现代韩国语的文字和单词就会变得非常容易理解。

像这样，韩国语过去和现在的样子大不相同。造成这一现象的原因就在于韩国语发生了变化，因此，（韩国语）并非某一天突然变成了和现在不一样的样子，而是在历经上百年漫长变化后形成的。在漫长的时间里一点一点发生着变化，当经过一定的时间后回过头再看 就会发现确实有了很大的改变。

很多人认为语言的变化就像文字或单词的变化一样。我们再来看《释谱详节》的例子。“가”中罗列的“·”、“△”、“순경음비음”、“ㅇ”等文字现如今都已不再使用。位于“:사르말”左侧的一个点或两个点现如今也不再使用。另外，从“나”中的“다외다”和“되다”，“섧다”和“서럽다”可以看出，过去存在的单词形态发生了变化，变成了和现在一样的样子。从“다”中的“갓”和“아내”例子可知，虽然指示同一对象，但15世纪和现代使用的单词却存在差别。

首先，例子“가”展示了中世韩国语的文字体系和现代韩国语的文字体系之间究竟有何不同。因此，在标记韩国语的文字历史上这一事实十分重要。但是，文字的历史并非是语言的历史。研究语言历史的学者之所以对文字的历史感兴趣，是因为过去的语言都是用文字记录的。换句话说，研究语言历史的学者们十分关心文字之间的这些差异究竟反映出了语言的哪些变化。

另外，“나”中单词的变化也并非语言的变化。中世韩国语时期使用的单词形态发生变化或消失或转变成其他的单词这些现象很明显属于语言的变化。

但是语言并不只靠单词构成。人们使用的语言是由被称为音韵的发音组成的。每一个语言的音韵都有自己的体系。这些音韵相互组合就构成了单词或句子。构成句子的规则即语法，它是由编写好的体系构成的。这些音韵体系和语法体系中单词的集合，即词汇体系一起有机地构成了语言。因此，语言的变化不仅发生在词汇上，也发生在音韵、语法等语言的各个方面。

那么我们为什么要学习韩国语的历史呢？又为什么要知道韩国语以前是什么样子呢？首先，从整体上看韩国人迄今为止的历史，会发现韩国语的历史就是其中的一部分。韩国人迄今为止一直用韩国语进行沟通。那么可以说，韩国语的历史反映了从很久以前到现在韩国人生活中的想法和感受。因此，从广义上来看，在以历史为中心的韩国学研究中在韩国语历史的研究占据着重要的位置。

第二，研究韩国语的历史有助于正确阅读和理解用韩国语记录的古典文学作品。之所以可以用现代韩国语理解前面看过的《释谱详节》的文章也是得益于对15世纪韩国语的研究。朝鲜后期创作的许多时调、小说等文学作品或韩文信件等也要以“当时韩国语究竟是怎样的”这一研究结果为基础。只有这样才能正确做出解释。

来看例子。下面所示的时调刊登在《青丘永言》一书中。因为这本书的制作时期是18世纪，所以韩国语的标记法与现代韩国语之间并没有太大的不同。因此，与前面看到的《释谱详节》的例子不同，这个时调的内容并不难理解。但最后出现的单词“깨와다”应怎样解释呢？

“我在细雨天锄完地之后在树下休息，牧童赶着牛羊从我的身旁经过，我被声音吵醒。”诗中描绘了这样的场景。在文学作品中，一般用现在时把单词“깨와다”翻译成“깨우는구나”。

但基于对韩国语历史研究的结果来看，“깨와다”是由表示“잠을 깨우다”意义的词干“깨오-”添加先语末语尾“-아-”和终结语尾“-다”构成。“-아-”表示时间上较近的过去。因此“깨와다”并非“깨우는구나”，翻译成“방금 나를 깨웠다”这一意义最为自然。

最后，学习韩国语历史相关的知识有助于理解韩国人所使用的现代韩国语。因为现代韩国语是从很久之前的韩国语那里变迁而来。“가”的“멧부리”和“멧새”在中世韩国语文献中表示为“뫼부리”和“뫼새”。另外，中世韩国语的“뫼”表示“山”。如果知道了上述事实，那么就可以知道现代韩国语“멧부”和“멧새”的“메”是由“뫼”变化而来。

“나”中的“갈치”对应的汉字是“刀鱼”，如果知道“갈”在中世韩国语时期是“갈”，那么“갈치”的名字就是根据它的样子像刀子这一内容而命名。由此可见，“갈”在变成“칼”之后，“갈치”仍然保持着“갈”的古老形态。

讲义

2차시 주차별 강의 내용 소개 (1)

本节课将对第一周至第五周的〈韩国语历史〉讲座中涉及到的主要内容进行简要介绍。

第一周将对韩国语的历史是什么，以及为什么学习等问题展开讲解。通过上述内容会发现，语言和世界上的其他事物一样都会发生变化，而韩国语也不例外。另外，韩国语的历史是韩国学的一个领域，是能够更好了解韩国人的一种手段。它不仅能够使我们了解韩国的古典文学，更重要的是还能够使我们更加深入地理解现代韩国语。

接下来，我们用两个星期的时间简要总结本次课程将要学习的内容。针对每周将要学习什么样的内容，可以通过这两次的讲座提前进行简要了解。

在后半部分，我们将挑选出每节课出现的语言学概念和专业术语分成标记、音韵、语法等部分，进行讲解。没有语言学专业知识的听众们在正式进入课程学习之前，可以先了解下这些核心的概念和术语究竟表示何种意义，用于何种情况之下。

在第二周，将针对韩国语历史研究的方法、韩国语历史的时代划分及基准，以及韩国语的系统等进行学习。首先将学习韩国语历史研究的方法。研究语言历史的方法主要有随时间推移研究语言变化的“展望式”方法，以及以特定时间为准，向前追溯研究的“回顾式”方法。我们将学习这两种方法。

研究语言的方法主要有通过文字资料进行的研究和比较方法、内在重构、方言比较等。在研究韩国语的历史时需要用到的文字资料有古文献、古文书、金石文、木简等。我们将学习上述这些东西都是什么，具有怎样的特征等。

接下来将学习区分语言历史的“时代划分”。首先，语言的历史可以分成指代语言体系自身变化的“内史”，以及指代除语言变化外，社会其他方面发生变化的“外史”。我们将根据这两个标准进行把握。

最后，将学习韩国语的系统。虽然有很多关于韩国语系统的各类观点，但均存在问题。那么都存在怎样的观点，这些观点又存在怎样的问题，哪些内容对今后韩国语系统的判定能起到助力作用等，针对这些问题将进行学习。

第三周将学习韩国语的标记和音韵。首先，在创制韩文之前韩国借用汉字标记韩国语，这一方法称为“借字标记”。我们将学习这一方法。古代韩国语时期，韩国语的标记方式主要有吏读、口诀、乡札等。吏读由汉字词和采用借字标记法标记的韩国语语法要素构成，是标记韩国语句子的一种借字标记形式。口诀是在汉文的原文上添加“吐”，即添加韩国语语法要素的借字标记形式。乡札是记载长期流传下来的韩国语歌曲“乡歌”时使用的一种借字标记形式。某种程度上通过中世韩国语的汉字音可以了解古代韩国语音韵体系中的辅音。

与中世纪或现代韩国语不同，古代韩国语不存在紧音，送气音处于稳定阶段。另外，古代韩国语时期不存在语头辅音群，但中世韩国语时期却已经存在，可以认为是在向中世韩国语转变的过程中产生了辅音群。另外，在古代韩国语的终声位置上可以存在9个以上的辅音。

古代韩国语的元音只能追溯到15世纪。古代韩国语中部分元音的音价很可能与15世纪的音价不同。虽然有学说认为14世纪的韩国语元音体系发生了巨大的变化，但目前缺乏证据的支撑。

第四周学习中世韩国语的标记和音韵。首先了解一下训民正音这一文字。训民正音是在世宗大王自主、爱民、实用精神的背景下创制而出的。在创制训民正音这一文字之后，针对文字的创制原理、使用方法等又出版了《训民正音》一书。这本书说明了文字制作的原因及目的，对文字进行了简要说明，并对文字的创制及运用原理进行了详细的解释。

中世韩国语的辅音体系和《训民正音》的初声字之间并不完全一一对应。中世韩国语实际使用的音素要多于训民正音的初声字。中世韩国语辅音的一大特征就是出现了古代韩国语时期所没有的紧音。

中世韩国语的元音体系和《训民正音》的中声字之间也并非一一对应。根据资料显示，中世韩国语存在7个单元音。另外，中世韩国语时期还存在“声调”，即用声音的高低来区分意义。从中世韩国语像现代韩国语转变的过程中，有一些文字不再使用，但也出现了一些新的声音。

第五周将学习近代韩国语的标记和音韵。中世韩国语的标记法是展现语素的交替形并进行记录的表音主义标记法。在进入近代韩国语后变成了展现语素的交替形并进行记录的形态音素标记法。另外，中世韩国语的标记法不存在隔写。

近代韩国语辅音变化中最重要的一个就是口盖音化现象。口盖音化现象是指非口盖音出现在 /i/ 或半元音 /j/ 之前，变成了口盖音的现象。

近代韩国语元音变化中最重要的一个就是“·”的非音韵化现象。15世纪时“·”被当成一个元音，但之后经历了两个阶段最终消失。最终，进入到现代韩国语时期后，只有济州方言存在“·”的使用现象。近代韩国语元音变化中另一个重要的内容就是存在下向复元音的单元音化现

象。中世韩国语中存在像“ㅈ”和“ㅊ”一样，在单元音之后添加/j/的/j/系列下向复元音。现代韩国语中它变成了发音为[e]的单元音。“ㅈ”和“ㅊ”在特定的时期变成了单元音，这一现象就叫做单元音化。这种变化发生于18世纪末至19世纪初。最终，19世纪后期“ㅅ”消失，“ㅈ”和“ㅊ”变成了[e]，形成了8个单元音的体系。

在今后时间里将以每周为一个单位带领大家详细学习上述所讲的内容。希望这堂课能够指引大家学习今后每周的课程内容。针对标记、音韵、语法等需要进一步说明的概念或术语请参考本周后半部分的讲义内容。

讲义

3차시 주차별 강의 내용 소개 (2)

本节课将对〈韩国语历史〉讲座中的第六周至第十周的内容做简要介绍。

第六周将学习古代韩国语的语法。首先从复习的角度对“记录古代韩国语的借字标记究竟是什么”这一问题，以及“该标记法使用了何种原理”等问题进行整理。当仅凭借一个字很难辨别形态时，在读义的字后面添加其末尾音进行标记就形成了“末音添记”的方法，对此也将进行学习。

接下来将详细讲解有关古代韩国语的资料。借字标记法的代表类型有吏读、口诀、乡札。这些代表资料如画面所示。另外，古代韩国语的语法要素中还存在格助词、辅助词、接续助词等。

古代韩国语的语尾中还存在语末语尾、连接语尾、转成语尾等。转成语尾中除了冠词型的功能之外，名词型的用法更为常用。

第七周将学习中世韩国语的语法。首先从复习的角度对“15世纪文献中使用的韩文字母究竟是什么”这一问题，以及“不再使用的字母究竟有哪些”等问题进行整理。接下来将详细介绍中世韩国语的资料。并将介绍画面中所展示的中世韩国语时期的代表资料。中世韩国语的语法要素中存在助词，其中还会有格助词、辅助词和接续助词。

中世韩国语时期使用了如画面所示的语末语尾。中世韩国语时期使用这些连接语尾和转成语尾。

中世韩国语的使动法要么是通过结合派生词缀变成使动词，要么通过添加“-게 하다”的句法结构来实现。被动法要么是通过结合派生词缀变成被动词，要么通过添加“-어 되다”的句法结构来实现。

第8周将学习近代韩国语的语法。首先确认近代韩国语究竟是指什么时候。引起近代韩国语发生变化并非只是因为壬辰倭乱这一个单一事件，与其说它是韩国语从中世纪到现代的过渡期，倒不如强调它本身就是一个可以成为研究对象的独立时代。

近代韩国语时期的代表性资料有翻译汉文的谚解书，以及学习外语的“译学书”。另外，国王给百姓下达的“纶音”，近代韩国语时期被广泛创作的时调、小说等文学作品，以及个人记

录的日记、信件等都可以看做是近代韩国语时期重要的资料。

接下来对近代韩国语的形态音素论特征，以及单词进行学习。中世韩国语时期由于以“ㅇ”结尾的体词，以及表现特殊词干交替现象的体词或谓词在进入到近代韩国语时期后形态发生了变化或发生了单一化现象，因此逐渐消失了原有的特征。另外，虽然“ㅁ”和“ㄷ”等音素逐渐消失，但在谓词的活用中却产生了“ㅂ”和“ㄴ”的不规则谓词。

从近代韩国语形成的单词来看，构成派生词的词缀中存在前缀和后缀。合成词的构成同样丰富多样，中世韩国语时期存在的“非统词性合成词”在逐渐减少。

近代韩国语的格助词中主格助词表示为“-가”，表示尊敬的主格助词是“-거옵서”、“-거오서”。冠词格助词中“-의”的分布逐步扩大，而“-ㅁ”渐渐变得不再使用。呼格助词中原本表示尊敬意义的“-하”渐渐不再使用。除此之外还存在表示比较意义的助词或辅助词。相对尊敬的“-이-’与其他先语末语尾融合，不再经常使用。

开始使用表现时态的先语末语尾中全新体现过去的‘-었-’表现未来的‘-겠-’。近代韩国语存在这些语末语尾、连接语尾、转成语尾等。

第九周将学习韩国语的词汇变化。词汇是单词的集合，根据词性、语源、语域的不同，存在多种多样的分类。词汇变化的类型有形态变化、语义变化、范畴变化等，词汇变化主要有语言原因、指示对象的变化原因、以及认知变化的原因等。古代韩国语的词汇不仅有固有词和汉字词，还存在从中国直接传入的借用词。

从中世韩国语的词汇中，可以确认固有词中元音调和引发的语义对立。也可以看到通过词汇中体现出的敬语法实例。另外，汉字词大幅增加，有些借用词来自于蒙古语和女真语，有些来自于汉语。

近代韩国语的词汇与中世韩国语相比更接近于现代的样貌。由于近代韩国语时期发生了音韵的变化，很多例子表现出了固有词的形态和意义向着现代语方向转变的内容。随着汉字词逐渐增多，出现了汉字词代替固有词的趋势。另外，除汉语之外，不仅从日语或满洲语中传入借用词，指代西方概念和事物的词汇也通过中国传入进来。

现代韩国语中指代西方思想和文化产物的词汇在中日两地被翻译成汉字后进入韩国，汉字词也随之增多。除了英语以外，不仅从西方其他语言中借用了大量词汇，在日本帝国主义殖民时期，也从日语中传入了大量的词汇。现代韩国语词汇的一大特征就是不断产生新造词。

第十周将学习现代韩国语。在韩国语的历史中，现代韩国语指的是从开化期到现代这段时间，在这段时间里也发生了一定的变化。从标记形式上来看，最初采用了仅用韩文标记的“国文体”，以及韩文和汉字共同标记的“国汉文体”形式，之后“国文体”占据了主导地位。

另外，随着近代化的发展，出现了制定拼写法和标准语的动向。以首尔话为中心制定了标准语，最终被整理成“词典”这一形式。

现代韩国语的音韵在继承近代韩国语的同时也产生了些许差异。例如辅音的情况，受外来词的影响，语头开始大量出现以“ㄹ”开头的单词。19世纪后期时的元音为8元音体系，但到了20世纪初由于出现了“ㅏ”和“ㅑ”的单元音化现象，变成了10元音的体系。之后“ㅓ”和“ㅕ”的发音趋于相同，“ㅏ”和“ㅑ”则变成了复元音，最终现代韩国语的单元音变成了7个元音的体系。

现代韩国语的助词和近代韩国语存在很多相似之处，主格助词“-이”和“-가”发生交替现象时辅音之后用“-이”，元音之后用“-가”，这种固定使用形式就发生在现代韩国语中。

现代韩国语的语尾中存在介词“-이-”和谓词“아니다”结合使用的活用现象，与中世韩国语一样，存在“이라서, 이라고, 아니라서, 아니라고”等不规则的活用现象，但这些逐渐变成了像“이어서, 아니어서”一样，规则的活用现象。相对敬语法的体系也发生了很大变化，分成了四种格式体和两种非格式体，共六个等级。辅助词“-요”的出现发挥了重要的作用。对客体的尊敬通过词汇进行表达。另外，终结语尾中出现了起源于连接语尾的内容。

现代韩国语分成了六大方言。其中东北方言和东南方言之间存在紧密的关系，上述两方言中都含有“声调”。西北、中部、西南方言中包含“音长”，在西北方言中不发生“口盖音化”现象。济州岛方言（和其他方言）相距较远，因此和其他方言之间存在较大差异，不存在声调和音长。光复之后，南韩和北朝鲜已分离70余年，南北之间的语言差异也在逐渐加深。

在今后的时间里，大家将在每个星期详细地学习刚才所介绍的内容。希望这节课能够指引大家学习今后每周的课程内容。针对标记、音韵、语法等需要进一步说明的概念或术语请参考本周后半部分的讲义内容。

讲义

4차시 주요 개념 및 용어 설명: 표기

在讲解〈韩国语历史〉的过程中使用了有关“标记”的概念和术语，本节课将对这些内容进行说明。

韩文创制之前借用了汉字标记韩国语，我们首先对这段时期内相关的概念和术语进行学习。首先来看“变体汉文”。汉文指的是用汉字标记古典汉语的内容。韩国人借用了汉字和汉文，但他们所写的汉文（某种程度上）受到了韩国语的影响，在语序等方面和汉语之间存在不少的差别。这种受到韩国语影响的汉文就被称为“变体汉文”。

“가”的“天前誓”就是韩国人写的汉文，表示“在苍天前盟誓”。如果按照汉文的语序应当写成“나”的“前天誓”。这种变体汉文在对后续使用汉字来标记韩国语的方法上起到了很大的影响。

其次看借字标记。借用汉字的音和训来标记韩国语的方法被称为借字标记法。创制借字标记的最初目的是使用汉字标记韩国语的名词。韩国人在用汉文写文章时，即使其他内容都用汉文来写，但为了能够标记汉语中不存在的固有名词，即地名、人名、官职名等，也需要另选其他的形式。

在借用汉字的音和训时，针对借音和借训，采用“音/训”原理，针对是否保留原来的意义，采用“读/假”的原理。因此，借字标记主要可以分成四大类型。第一是音读。音读就是借用汉字的音，同时保留其意义。例如“공주”写作“公主”，汉字“公”和汉字“主”借用了汉字的音，而且保留了原义。这种形式大体等同于汉字词。

第二是音假。音假指的是虽然借用了汉字的音，但是并没有保留其意义。“개똥이”的“똥”写作汉字“同”，虽然借用的是汉字“同”的音，但是却没有保留“相同”这一意义，只是发出了“同”的音。

第三是训读。训读指的是借用了汉字的训，同时又保留了原义。“참이슬”写成汉字“眞露”，汉字“眞”和汉字“露”都是借用了汉字的训，同时它们的意义也被保留了下来。

第四是训假。所谓的训假就是指虽然借用汉字的训，但是并没有保留其意义。在单词“개똥이”中“-이”写作“是”，这就是借用了汉字的训，但是并没有使用该汉字“这个”的意义，仅仅是把

“-0|”当做韩国语的后缀使用。

接下来看一下吏读。在使用借字标记法记录韩国语的句子时，方法中存在“吏读”这一形式。所谓的吏读就是把汉字词或汉字表现按照韩国语的语序进行排列，并在其中添加韩国语的语法要素。吏读主要出现于记录“石碑”、“钟”等纪念物，或用于记录公文等。

口诀是指在学习汉文的过程中，为了能够理解汉文，在汉文中间添加韩国语语法要素的一种借字标记形式。在口诀中表示语法要素的汉字或韩文被称为“吐”。口诀文的最大特征就是以汉文的原文为中心，因此如果去掉文中的“吐”，就又恢复成了原来的汉文。口诀主要用于儒家和佛教的经典中。

为了能够按照韩国语的语序解读汉文，在汉字的左侧或右侧添加“吐”的形式，这种口诀被称为释读口诀。这可以说是把汉文翻译成韩国语的一种方法。另外是音读口诀。以意义为单位断开汉文，在中间添加“吐”的形式，这就称为音读口诀。这可以说是用韩国语理解汉文的一种方法，但不能称其为翻译。

口诀可以分成字吐口诀和点吐口诀两种。如果使用汉字或韩文等文字形式在汉文的原文上添加“吐”，那么就称为字吐口诀。反之，如果在汉文原文上添加“吐”的时候不是使用文字，而是使用点或线等符号，那么就称为点吐口诀。

接下来是乡札。流传已久的韩国歌曲称为乡歌，而借用汉字的音或义来标记乡歌的方式就被称为乡札。虽然乡札与吏读存在相似之处，但大多数的乡札不使用汉字词，而是用固有词标记歌词。使用乡札记录的乡歌资料现如今并不多。

下面是语素。语素指有意义的最小单位。语素存在于我们的内心之中，不能够再对其细分，如果对其进一步细分，将不再具有意义。例如，收音为“ㄴ”的单词“값”。

形态音素交替现象也被称为交替现象。语素出现的环境，即根据前后出现要素的不同，语素也会具体显现出不同的样貌。这就是形态音素交替现象，即交替现象。例如单词{값}根据后面连接助词的不同，可以出现“값이[갑씨], 값도[갑또], 값만[갑만]”等发音形式。这种现象就是交替。在交替过程中，语素根据环境转变出不同的形态，这些形态就称为异形态或交替形。例如收音为“ㄴ”的单词“값”，其异形态存在[갑ㄴ, 갑, 갑]三种。

下面来看与有关韩文标记的概念。首先是音素标记。揭示语素的异形态或交替形并进行标记的方法称为音素标记。换句话说也被称为表音主义标记法。例如“사람”和助词“-0|”连用时，写作“사라미”的形式。从书写的角度来看，音素标记是按照发音直接进行记录的方式，但从阅读的角度来看，这种标记形式究竟表示哪一个语素，需要进一步做出思考，因此，这种标记法也被称为以书写者为中心的标记法。

另一种是形态音素标记法。与音素标记法不同，揭示并记录语素的标记法称为形态音素标记法。也被称为表意主义标记法。例如“사람”和助词“-이”连用时，写作“사람이”的形式。形态音素标记法虽然在书写时需要考虑究竟写的是哪一个语素，但从阅读的角度来看，它的可读性很高，因此也被称为以读者为中心的标记法。

下面是“连缀”。当有收音的体词或谓词词干与后面以元音开头的助词或语尾相连时按照发音把收音置于后一个音节的初声位置上加以记录，这种就称为“连缀”。下面是“分缀”。当有收音的体词或谓词词干与后面以元音开头的助词或语尾相连时不按照发音进行记录，而是以语素为单位进行标记，这种形式被称为“分缀”。然后是“重缀”。把体词或谓词词干收音位置上的辅音在中声位置和语尾的初声位置上标记两次的现象称为“重缀”。可以说这种形式既考虑到了语素，同时也在某种程度上反映出了发音。“밥이”写成“밥비”，或者“먹어”写成“먹거”都是这种实例。

接下来是东国正韵式的汉字音和现实中的汉字音。训民正音创制之后，为了矫正当时朝鲜地区使用的现实汉字音，根据中国过去使用的汉字音制作出了汉字音词典《东国正韵》。这种被矫正的汉字音就称为东国正韵式的汉字音。虽然这种东国正韵式的汉字音仅从世宗时期用到了世祖时期，但这种音是人为制造的汉字音，所以从成宗时代开始就逐渐不再使用，而仅用现实的汉字音进行标记。

接下来看基本字。训民正音基本字中的初声字为5个，中声字有3个。初声字根据象形的原理，模仿调音器官的样子制造出“ㄱ, ㄴ, ㄷ, ㄹ, ㅁ”等五个基本字。中声字根据性理学原理，即有关天地人的三才思想，制造出“·, —, |”三个基本字。

接下来是加划字。以5个基本字为基础，根据添加笔画这一加划原理，表示出声音更强的意思。下面是异体字。它与加划字一样都是在基本字的基础上添加笔画形成。但它与加划字相比没有声音更强的意义。

接下来是初出字。中声位置上的3个基本字经过结合，最初形成的文字就是初出字。接下来是再出字。再出字就是中声位置上的基本字与初出字组合，再一次形成的文字。接下来是并书。在组合初声字的方式中，将两个或三个初声字并排书写的方式就是并书。并书分为各自并书和合用并书两种。各自并书。各自并书就是指同一个初声字书写两遍的情况。合用并书。合用并书就是两个或三个不同的初声字结合书写的形式。连书。组成初声字方式的一种，由两个初声字按照上下方向进行标记的形式。

讲义

5차시 주요 개념 및 용어 설명: 음운

本节课将学习有关音韵的概念和术语。

首先是音素。音素是指在语言中起到区分意义作用的最小声音。例如“달, 탈, 딸”就是不同意义的单词。这些单词的意义各不相同是由于音素/ㄷ, ㅌ, ㅍ/存在差别。像这样，音素具有区分意义的作用，但是音素本身不具备意义。音素写在“//”之内。

下面是韵素。韵素是指在语言中除了音素之外，起到区分意义作用的要素。韵素包含声音的长短、高低、大小等内容。韵素也被称为“超分节音素”。接下来是音韵。音韵就是音素与韵素相互结合形成的内容。

下面是辅音。气流在口腔中受阻时制造的声音就是辅音。下面是“调音位置”、“调音方法”及“发声类型”。根据发出声音的位置、制造声音的方法、以及根据声带中控制气流的方法分成如下几种。现代韩国语的辅音根据“调音位置”、“调音方法”及“发声类型”等进行分类，如下表所示。接下来是辅音群。辅音群是指在初声或终声位置上存在两个及以上的辅音。位于单词开头位置的辅音群成为语头辅音群，位于词干终声位置上的称为词干末尾辅音群。

下面是元音。气流通过口腔时不受任何阻碍，这种情况下发出的音就是元音。接下来是与“舌的高低”、“舌的前后”，“嘴唇的突出与否”相关的内容。根据“舌的高低”、“舌的前后”，“嘴唇的突出与否”等，元音分类如下。现代韩国语的辅音根据“舌的高低”、“舌的前后”，“嘴唇的突出与否”等进行分类，如下表所示。接下来是单元音。从发音的开始到结束，只通过一种调音动作形成的元音称为单元音。例如，元音“ㅏ[a]”从始至终只存在一种发音的动作，因此被称为单元音。接下来是复元音。通过两种调音动作形成的元音称为复元音。例如元音“ㅗ”，它由半元音/ㅜ/和单元音/ㅗ/通过相互结合形成了[ㅜㅗ]的发音。发音由“ㅜ”变成了“ㅗ”，发生了调音动作的转变。像“ㅗ”一样，半元音在前，单元音在后的结构称为上向复元音，像ㅗ[a]一样，单元音在前，半元音在后的结构称为下向复元音。

接下来是元音推移。在很长的时间里元音体系中的元音都通过推拽的形式发生了位置上的改变，最终元音的体系发生了变化，这种现象就称为元音推移。有观点认为韩国语元音的推移发生在14世纪。

接下来是元音调和。在一个词组或一个单词内部相同的元音结合在一起表现出的现象被称为元音调和现象。中世韩国语时期，在一个句子的内部，像“·, ㅏ, ㅑ”一样的阳性元音和阳性元音相结合，像“ㅡ, ㅓ, ㅕ”一样的阴性元音和阴性元音相结合。“ㅣ”在当时属于中性元音。现代韩国语的动词活用也是如此，“잡다”与后面的“-아”相连，“먹다”和后面的“-어”连接。语尾的元音要和词干的元音相同，这也是一种元音调和的现象。

下面来看声调。在通过韵素中音的高低区分意义时使用的就是声调。汉语中存在声调，韩国语的庆尚道和江原道东海岸方言中也存在声调。接下来是音长。在通过韵素中音的长短区分意义时使用的就是音长。在日语或韩国语的一部分方言中使用音长来区分意义。

音节指的是一个或多个音素在一定规则下形成的单位。音节由初声、中声、终声构成，而中声一定存在。接下来是同化现象。某一声音被出现在它前面或后面其他声音的性质所吸引，使之变的相似，这种现象就是同化现象。同化现象中有一些是受周围声音影响而发生的“邻接同化”，也有一些发生在两个不直接相连的音之间，称为“隔离同化”。受前面音的影响，后面的音发生同化的现象称为“顺行同化”。受后面音的影响，前面的音发生同化的现象称为“逆行同化”。

下面是异化现象。某一声音变得与前面或后面出现的另一种声音的性质不同，被称为异化现象。下面是口盖音化现象。指的是非口盖音辅音与/i/或半元音/j/相结合，变成口盖音的现象。单词“굳이”的发音为[구지]，这就是口盖音化现象的例子。

下面是非音韵化现象。原本在某一语言中起到区分意义作用的声音，即音韵变成非音韵的现象被称为非音韵化现象。韩国语中的“·”虽然本身作为有音价的音素而存在，但随着时间的推移，它变成了“ㅡ”和“ㅏ”，最后消失不见。这就是经历了非音韵化的过程。

下面是单元音化现象。像复元音一样，原本的非单元音随着时间的流逝变成单元音的现象就是单元音化现象。韩国语中像“ㅣ[əj]”和“ㅣ[aj]”一样的“j”系列下向复元音从18世纪开始就变成了[e]和[ɛ]，经历了单元音化的过程。下面是/ㅣ/的逆行同化现象。由于后面的/i/或半元音/j/导致后舌元音变成前舌元音的现象被称为/ㅣ/的逆行同化现象。例如“삿기”变成了“새끼”或者“아기”变成了“애기”，或者“먹이다”变成了“멕이다”等。

下面是送气音化现象。指的是辅音中的松音变成送气音的现象。例如中世韩国语中的“고ㅎ”变成“코”的现象。下面是紧音化现象。指的是辅音中的松音变成紧音的现象。例如中世韩国语中收音为“ㅅ”的“갸다”变成“깁다”的现象。

下面是圆唇元音化现象。指的是两唇音“ㅁ, ㅂ, ㅍ, ㅍ”后的“ㅡ”变成“ㅜ”的同化现象。中世韩国语的“물, 불”变成了现代韩国语的“물, 불”。下面是非圆唇元音化现象。与圆唇元音化相反，两唇音之后的“ㅏ”变成“ㅓ”的异化现象被称为非圆唇元音化现象。中世韩国语的“문저, 보션”

变成了现代韩国语的“먼저, 버선”。

下面是前舌高元音化现象。其他的元音变成了前舌高元音“ㅣ”的现象被称为前舌高元音化现象。中世韩国语的“어즈럽다”变成了“어지럽다”，“일즉”变成了“일찍”，“ㅅ, ㅈ, ㅊ, ㅌ”之后的“ㅡ”变成了“ㅣ”等，这些都是前舌高元音化现象。

讲义

6차시 주요 개념 및 용어 설명: 문법

讲解韩国语历史相关的课程会使用到有关语法的概念和术语，本节课将对这些内容进行说明。

首先看一下单词的词性分类。把单词按照形态、功能、语义等进行分类的类别乃至范畴就是词性。根据形态可以分成不发生变化的“不变词”和发生变化的“可变词”。根据功能的不同，主要可分为表示主语或宾语功能的体词，表示叙述功能的谓词，表示修饰其他词汇功能的修饰词，表示前面的体词与其他单词之间关系的关系词，与其他单词之间没有关联，可以独立使用的独立词等。如果根据意义再进行细分，那么体词还可以分成名词、代词、数词，谓词再分成动词和形容词，修饰词分成冠词和副词等。

在上述的九大词性中，体词后面要连接关系词，即助词。另外，属于可变词的谓词中不发生变化的部分叫做词干，发生变化的部分称为词尾，词干之后要和词尾相连。像这样体词和谓词结合使用的现象就叫做“屈折”。而谓词之后与词尾相结合的现象称为“活用”。

接下来看一看表示韩国语语法功能的众多要素中有关助词的内容。首先看助词。助词主要和体词相连，表示体词和其他单词之间有何种语法关系，或者表示添加特殊的意义。助词可以分成格助词、辅助词、接续助词。

来看一下格助词。格助词指的是置于体词之后，表示该体词与其他单词之间有何种语法关系的助词。主要有这些具有代表意义的格助词。接下来是辅助词。辅助词置于体词之后，表示对该体词添加特殊的意义。主要有这些具有代表意义的辅助词。下面是接续助词。接续助词指的是连接体词和体词，使之成为一个语法成分的助词。主要有这些具有代表意义的接续助词。

表示韩国语语法功能的诸多要素中“语尾”与谓词的词干结合使用，下面我们来看有关“语尾”的概念和术语。在谓词的活用现象中，语尾作为出现在词干之后的语素，表现出多种多样的语法功能。语尾大致分为“语末语尾”和“先语末语尾”。

下面是语末语尾。语末语尾指的是在谓词活用时最后面出现的语素。语末语尾可以细分为“连接语尾、转成语尾、终结语尾”等。下面是终结语尾。终结语尾就是表示句子结束的语末语尾。终结语尾通过陈述式、疑问式、命令式、感叹式、请求式、约定式等表现多种句子的类型。同时在相

对敬语中通过“해라”体、“하게”体、“하오”体等形式表现对听话人的尊敬。主要有这些具有代表意义的终结语尾。

下面是连接语尾。连接语尾是表示连接句子和句子的语末语尾。一般来讲，可以分成表示对等连接两个句子的“对等连接语尾”，表示前句从属于后句的“从属连接语尾”，以及表示在本谓词上连接辅助谓词的“辅助连接语尾”等。根据句型的不同，具有代表意义的连接语尾有这些。

下面是转成语尾。转成语尾指的是为了让谓词在句子中具备名词或冠词的功能，从而改变(谓词)性质的语末语尾。大致分为名词型转成语尾和冠词型转成语尾。各类型的转成语尾主要有这些。下面是先语末语尾。先语末语尾指的是出现在词干和语末语尾之间的语素。先语末语尾表示敬语法、时制、相等多种语法功能。

下面看敬语法。在尊敬句子的登场人物或尊敬对话中的对方时使用的语法表现就是敬语法。敬语法有主体敬语法、客体敬语法、相对敬语法等。下面是主体敬语法。对句子的主体，即主语进行尊敬的方法就是主体敬语法。现代韩国语中助词“-께서”或先语末语尾“-시-”都表示主体敬语的功能。

下面是客体敬语法。对句子主体的行为所涉及的对象进行尊敬，即对宾语和状语进行尊敬，称为客体敬语法。现代韩国语中通过“드리다, 여쭙다, 뵈다, 모시다”等几个特殊的动词来实现。下面是相对敬语法。针对对话中的听话人，即听者进行的尊敬，称为相对敬语法。现代韩国语中主要通过终结语尾来实现。

下面是时制。通过语法手段将事态指示到特定的时间位置，这种现象就称为时制。中世韩国语和现代韩国语中都存在过去、现在、将来等三种时制。如果“说话时”，即“说话的时间”和事件发生的时间一致，那么就是现在时，如果事件发生在说话时之前就是过去，反之事件发生在说话时之后则为未来。下面是“相”。与事态的时间位置无关，与观察事态发生的时间构造及展开现象有关的语法范畴称之为“相”。大致分为将整个事件视为一个整体的“完望相”和将事件内部一部分结构视为一个整体的“非完望相”两部分。

下面是被动。主语受其他人或事物影响发生移动的动词性质称为“被动”。反之称为“能动”。现代韩国语在表现被动时可以在能动词上添加表示被动的派生后缀“-이-, -히-, -리-, -기-”等，也可以在本动词上添加辅助动词“지다, 되다”实现被动。下面是使动。使动主体让被使动主体做某一行为，这种动词性质就称为“使动”。反之，则叫做“主动”。现代韩国语在表现使动时可以在主动词上添加“-이-, -히-, -리-, -기-, -우-, -구-, -추-”等，表示使动的派生后缀，也可以在本动词上添加辅助动词“게 하다”实现使动。

接下来，让我们了解一下与韩国语单词形成有关的概念和术语。以现有的材料为基础创造新单词的现象称为单词的形成。这里大致分为派生和合成。下面是单纯词。像“책, 길, 산, 마음, 구름”一样，单纯词指的是由不能再细分的唯一语素所组成的词汇。

下面是复合词。复合词指的是由两个以上的语素组成的单词。复合词分成派生词和合成词。下面是派生词。像“덮개, 덧입다, 먹보”一样，但单词或词根上添加词缀，形成的单词就是派生词。

制造派生词时使用的词缀就是派生词缀。派生词缀分为前缀和后缀。下面是前缀。放在单词或词根的前面，形成新单词。这种词缀称作前缀。大部分前缀不能改变新造词的词性。这些都是前缀的例子。接下来是后缀。放在单词或词根的后面，形成新单词。这种词缀称作后缀。大部分后缀可以改变新造词的词性。这些都是后缀的例子。

下面是合成词。像“산길, 책상, 검푸르다”一样，由两个以上的单词或词根相互结合形成的单词就是合成词。可以分成“统词性合成词”和“非统词性合成词”。下面是统词性合成词。合成词之间构成要素的结合方式如果遵循句子构成的规则，就称为统词性合成词。这些都是统词性合成词的例子。下面是非统词性合成词。合成词之间构成要素的结合方式如果不遵循句子构成的规则，就称为非统词性合成词。这些都是非统词性合成词的例子。